

# September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5 09 vol.285



#### Cover Story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3회 정기연주회  
반갑습니다 이승호 부산문화회관 신임관장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 3인 3색 음악회

2015. 9. 18 (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 PROGRAM |

1. 몽금포주제에 의한 [향] / 작곡 : 오윤일
2.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 / 작곡 : 박범훈 / 편곡 : 조정수
3. 춤을 위한 나나니 / 작곡 : 박범훈 / 노래 : 박성희
4. 국악관현악 [고별] / 작곡 : 오혁
5. 프론티어 / 작곡 : 양방언
6. Prince of Jeju / 작곡 : 양방언
7. 국악관현악 [청산] / 작곡 : 김대성



객원지휘 유용성



객원지휘 김경수



객원지휘 황미나



노래 박성희

| 협연 |

주최 \_ 부산광역시 | 주관 \_ 부산시립예술단 | 입장료 \_ R석 10,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_ <http://culture.busan.go.kr> | 문의 \_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051) 607-3105, 공연운영팀 051)607-3143

제 43 회 Busan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오충근

2015. 10. 13. Tue.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협연 여미혜

## Program

- |                    |   |
|--------------------|---|
| 스메타나<br>B. Smetana |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br><The Moldau(Vltava)> from Symphonic Poem 'My Fatherland'   |
| 드보르자크<br>A. Dvořák | 첼로 협주곡 b단조, 작품104<br>Cello Concerto in b minor, Op.104                            |
| 드보르자크<br>A. Dvořák |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e단조 작품95<br>Symphony No.9 <From The New World> in e minor, Op.95 |

주최 |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 부산은행 비엔그룹 조광페인트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102굿모닝백이안과

티켓 | VIP석 3만원 . R석 2만원 . A석 1만원 (전석 학생 50%할인)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 ticket.interpark.com

문의 | 051)621-4577 | www.bso21.com



T.J.F 심포니 오케스트라



피아노 이동섬

# Sibelius · Chopin

## 두개의 사랑

2015. 9. 10 (목) 저녁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지휘 이효상



작곡 진소영

### PROGRAM

진 소 영 Maskentanz Concerto  
Chopin Piano Concerto No. 1 op.11  
Sibelius Symphony No.1 E minor op.39

예술감독 김원명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T.J.F 심포니 오케스트라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2천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총제작 | 김일택 총괄기획 | 공영식 홍보 | 남수현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 본 공연은 2015년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을숙도명품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지원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BUSAN Neo Philharmonic Orchestra

# OPERA

## Concert



음악감독 및 지휘  
홍성택



총연출  
오세준

9. 21 | 라 트라비아타  
 MON | *La Traviata*



Sop. 구민영



M.sop. 성미진



Ten. 조윤환



Bar. 박대용

9. 22 | 세비야의 이발사  
 TUE | *The Barber of Seville*



Sop. 김민성



M.sop. 성미진



Ten. 조윤환



Bar. 박대용



Bas. 김태경

9. 22 | 카르멘  
 TUE | *Carmen*



M.sop. 성미진



Sop. 구민영



Ten. 허동권



Bar. 박대용

2015. 9. 21(월)~22(화) PM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주 최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후 원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옥성화학 공연문의 | 070-8899-7808/010-8515-7020

입장권 | 학생 1만원, S석 2만원, R석 3만원, VIP 5만원

예매처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 본 사업은 2015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메세나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Peace

지휘 김범수

2015. **9.24**(목) 19: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말러 / 교향곡 제5번 4악장 아다지에도  
G.Mahler / Symphony No. 5 c# minor - IV Adagietto

브루흐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g단조 작품26 - Vn. 윤수영  
M.Bruch / Violin Concerto No.1 g minor, Op.26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9번 E플랫장조 작품70  
D.Shostakovich / Symphony No.9 in E b Major, Op.70

바이올린 윤수영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http://culture.busan.go.kr) 티켓 | 균일 2,000원 문의 | 607-3105(홍보팀) 607-3146(운영팀)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지" 앞 ▶ 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 ~ 금 19:00(공연 있는 날에 한함)



Cultural Story<sup>+</sup>

- 08 커버스토리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3회 정기연주회
- 10 9월 공연 캘린더
- 12 반갑습니다  
이승호 부산문화회관 신임 관장
- 1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허베이성에서 은하수를 만난다\_허정애
- 18 불멸의 거장 - 변박①  
동래의 화가 변박,  
그는 역사의 주류 안에서만 살았다\_강남주
- 20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공단속의 문화 무지개  
- 흥티아트센터, 흥티문화공원\_강기표
- 22 그곳에 가면  
관객문화전용관 모퉁이극장
- 24 우리는 문화가족  
오륙도문화예술연구회
- 26 테마가 있는 여행  
울산의 DMZ 회야댐 생태습지

Boards Inside<sup>+</sup>

- 31 프리뷰
- 36 리 뷰
- 38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sup>+</sup>

- 58 새로 나온 책
- 59 새로 나온 음반
- 60 부산문화회관 소식
- 6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5년 9월호 통권 285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이승호 편집인 박원철 편집 백경옥 정복엽 발행일 2015년 8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3회 정기연주회 전람회의 그림

9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4~5, 3106





## 청명한 가을 하늘 만큼이나 맑고 투명한 비파의 음색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9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3회 정기연주회 '전람회의 그림'에서는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중국 중앙민족악단 비파수석 자오 총(Zhao Cong)의 협연으로 평소 무대에서 자주 들을 수 없는 비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중국의 전통악기로 알려진 비파는 사실 중국만의 악기라기 보다는 한국과 일본, 베트남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전통 현악기이다. 비파는 발현악기의 일종으로, 현을 밖으로 내어타는 것을 비(琵琶), 안으로 들여타면 파(琶)라고 하여 비파라 이름붙여졌다고 한다. 비파라는 명칭이 등장한 시기는 대략 중국 위진(魏晉)시대 로, 비파는 중국 역사의 황금기와 함께하며 2천년 이상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비파는 우리나라에도 일찍 전해졌는데, 현재 전해지는 비파는 크게 향비파(絳琵琶)와 당비파(唐琵琶)로 나뉜다. 현이 다섯줄 이라 '오현(五絃)'이라고도 불린 향비파는 당시 가야금, 거문고와 함께 '신라삼현(新羅三弦)'으로 불리며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뒤이어 당나라에서 전해진 당비파와 구분하기 위해 향비파로 불렸다. 오늘날 비파는 넓은 음역과 다양한 음색, 그러면서도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투명한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비파 협주곡 '플라잉 실크로드'를 들려주는 비파 연주자 자오 총은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중앙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비파 교육가 Li guang hua 선생을 사사했다. 중국 청년 전공비파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한 자오 총은 미국 뉴욕 링컨센터 Carnegie 콘서트, 워싱턴 케네디 콘서트, 프랑스 파리 Champs Elysees 대극원, 일본 삿포로 콘서트, 이탈리아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콘서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극원, 벨기에 Europa 음악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음악제, 영국 런던 Barbican 예술센터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 왔으며,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리커창 등 중국의 국가지도자들과 미국 대통령 클린턴, 러시아 대통령 푸틴, 러시아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호주 총리 케빈

리드 등 수많은 정상들 앞에서 연주무대를 갖기도 했다. 북경대학교 예술단 고문, 미국 산호세 국제예술제 예술위원회 이사 및 고급심사위원, CCTV 민속악기대회·국제중국악기대회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자오 총은 올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국 신년음악회 초빙 예술가로 무대에 서기도 했다.

자오 총의 비파연주에 앞서 정기연주회 첫 무대에서는 지난 2012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최연소 바이올린 수석으로 화제가 된 바이올리니스트 홍은지가 중국의 작곡가 첸 강(Chen Gang, 1935~)과 허 잔하오(He Zhanhao, 1933~)가 작곡한 아름다운 선율의 바이올린 협주곡 '나비연인(The Butterfly Lovers)'을 들려준다. 협연을 맡은 홍은지는 5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스즈키 메소드(Suzuki Method)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후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였던 마크 고렌슈타인, 서울대학교 백주영 교수로부터 사사받았다. 서울대학교 기악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 중 도미, 미국 클리블랜드음대에서 음악수업을 한 홍은지는 중학생때 최연소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을 시작으로 2005년 Pacific Music Festival Orchestra 수석, 미국 Brevard Music Festival Orchestra 부악장, 대구 MBC 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악장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2부 첫 무대이자 이번 정기연주회의 마지막 무대는 러시아적 색채가 강한 무소르그스키의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으로 장식한다.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화가였던 하르트만의 친구였던 블라디미르 스타소프가 하르트만의 유작을 모아 개최한 추모전람회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전람회의 그림'은 하르트만의 그림을 독특한 감성으로 풀어낸 10곡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1922년 모리스 라벨, 레오 폰테크 등이 관현악곡으로 편곡하여 널리 연주되고 있으며 폰테크의 편곡이 원작의 분위기를 더 잘 살렸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특히 이 곡은 비정통적이고 현대적인 음향들, 러시아 교회선법적 화성, 민속적 성향이 강한 선율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러시아적인 색채가 짙게 배인 곡으로 풍성한 가을의 서정을 선사한다.



2015 SEPTEMBER

# CULTURAL SCHEDULE

청림 海 부산



인터넷 예매



공연일정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DAY	MONDAY	TUESDAY
		1
		<p><b>중</b> 위드앙상블 창단연주회 19:30 균일 2만원/위드앙상블 (010-4391-1106, 010-2992-3960)</p>
6	7	8
<p><b>중</b> 제5회 황미리 플루트 독주회 '세계명작 플루트 이야기' 17:00 2만원 · 1만원/황성준(010-3556-7308)</p> <p><b>소</b> 제6회 참플룻 정기연주회 15:00 초대/참플룻(010-4016-7477)</p>	<p><b>대</b> 2015 제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강릉 시립교향악단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p> <p><b>중</b>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 제37회 정기 연주회 'John Leavitt-Festival Mass' 20:00 초대/한울림합창단(010-9044-7576, 010-6252-0019)</p>	<p><b>대</b> 2015 제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p> <p><b>중</b> 배학수 클래식기타 연주회 19:30 균일 3만원 배학수(246-2780, 010-3585-3780)</p> <p><b>소</b> 팜페라 듀엣 '라 루체' 제2회 정기공연 'Mi Manchi(그대가 그림다)' 19:30 초대/라 루체(010-4752-0523)</p>
13	14	15
<p><b>대</b> 제33회 전국공모 KBS부산 무용콩쿠르 본선 09:00 KBS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620-7327)</p> <p><b>중</b> 뽕공연단 8번째 정기공연-시니어공연단 18:00 균일 2만원/뽕공연단(644-6627)</p>	<p><b>소</b> 윤경선 가야금 독주회 '공존의 시간' 19:30 무료/신정현(010-3273-8184)</p>	<p><b>대</b> 2015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코리안 슈퍼투어' 부산공연 19:30 13만원 · 10만원 · 8만원 해화JHP(02-2681-8698)</p> <p><b>중</b>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 10주년 기념 제자음악회 '가을이 오는 소리' 19:30 초대/M&amp;M CANTO(010-4434-6605)</p>
20	21	22
<p><b>대</b>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어울림' 18:00 균일 1만원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 010-8918-1535)</p>	<p><b>대</b> 부산코러스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 부산코러스합창단(010-2551-7542)</p>	<p><b>대</b> 글로리콰이어 제24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글로리콰이어(010-5513-0314)</p> <p><b>중</b> 소프라노 윤지영 독창회 19:30 균일 1만원/윤지영(010-5165-3744)</p> <p><b>소</b> 소프라노 권순유 독창회 19:30 균일 2만원/권순유(010-3559-8291)</p>
27	28	29

<예술에의 초대>는 카페메네 부산시 전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	3	4	5
<p><b>중</b> 김혜진 가야금 독주회 20:00 무료/김명수(010-3130-1353)</p>	<p><b>중</b> 클래식기타 제레미 주브&amp;바이올린 백현경 듀오 콘서트 20:00 3만원 · 2만원/부산문화(1600-1803)</p>	<p><b>대</b> 2015 제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연주 -멕시코 할리스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p> <p><b>중</b> 2015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생명존중 문화공연 15:00, 18:00 부산광역시자살예방센터(242-2575, 내선 308)</p>	<p><b>대</b> 2015 제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충북도립교향악단 17:00 3만원 · 2만원 · 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p> <p><b>중</b>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관현악단(DOMO) 제11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고요환(010-5591-3395)</p> <p><b>소</b>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양상블의 초대'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p>
9	10	11	12
<p><b>중</b>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부산 챔버 뮤직페스티벌' 19:30 2만원 · 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p>	<p><b>대</b> 2015 제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제주 시립교향악단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p> <p><b>중</b>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부산 챔버 뮤직페스티벌' 19:30 2만원 · 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p>	<p><b>대</b> 2015 제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폐막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p> <p><b>중</b>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부산 챔버 뮤직페스티벌' 19:30 2만원 · 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p>	<p><b>대</b> 제8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KNN(1800-2575)</p> <p><b>중</b>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부산 챔버 뮤직페스티벌' 15:00 2만원 · 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p> <p><b>소</b> 토요일상설무대-창작국악단 젊은풍류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p>
16	17	18	19
<p><b>대</b>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 · 사랑 나눔 콘서트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한국전력 부산울산지역본부(801-2322)</p> <p><b>중</b> 김윤희 플루트 독주회 19:30 2만원 · 1만원 예술기획 윤(010-9025-2012)</p>	<p><b>대</b> 부산시립합창단 제158회 정기연주회 '지휘자 박신화 초청 합창으로 듣는 가을 소나타'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2, 3108)</p> <p><b>중</b>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가을소나타' 19:30 균일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b>소</b> 홍병희 클라리넷 독주회 19:30 초대/홍병희(010-3849-0863)</p>	<p><b>대</b>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23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페스티벌' 19:30 무료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8, 3147)</p> <p><b>중</b>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공연 '3인 3색 음악회' 19:30 1만원 ·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3, 3105)</p>	<p><b>대</b>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23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페스티벌' 17:00 무료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8, 3147)</p> <p><b>중</b> BS오퍼스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 BS오퍼스앙상블(010-3952-5697)</p> <p><b>소</b>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p>
23	24	25	26
<p><b>대</b> 유니타이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유니타이드문화재단(02-553-0377)</p> <p><b>중</b> 최지은 피아노 독주회 'Romantic Story' 19:30 균일 1만원/최지은(010-2333-2544)</p>	<p><b>대</b> 테너 오동주의 15th Story Concert '사랑과 그리움에 대하여 ...' 19:30 균일 2만원/오동주(010-4556-5058)</p> <p><b>중</b>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1회 정기연주회 'Peace'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6, 3105)</p> <p><b>소</b> 가족뮤지컬 '피터팬' 10:10, 11:10 균일 5천원/카즈샘&amp;프렌즈(02-6203-6593)</p>	<p><b>대</b>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3회 정기연주회 '전람회의 그림' 19:30 2만원 · 1만 5천원 · 1만원 ·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4~5, 3106)</p> <p><b>중</b> 남유미&amp;이수민 듀오 리사이틀 19:30 균일 2만원/썬세네(02-552-2505)</p>	
30			
<p><b>대</b>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 19:30 균일 1만 5천원/(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 010-8918-1535)</p> <p><b>중</b> 소프라노 허미경 독창회 19:30 5만원 · 3만원 예술기획(02-586-0945) 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p>		<p><b>전시실</b></p> <p>한국 문화 대전 - 대전전시실 9월 2일(수)-9월 5일(토) ※ 시상식 : 5일(토) 오후 2:00 국제회의장 최연성 868-5236</p> <p>2015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 대 · 중전시실 9월 6일(수)-9월 13일(토) 부산미술협회 632-2400</p>	<p>제11회 동명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 실내건축학과 졸업작품 전시회 - 중전시실 9월 18일(금)-9월 20일(일) 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 629-2481</p> <p>제3회 부산서예협회 회원전 - 대전전시실 9월 19일(토)-9월 21일(월) 회장 윤종철 010-9753-0718</p>

# 부산문화회관 신임 관장 이승호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친숙한 시민 휴식 공간 조성



● “30여년 간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부산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프로듀서 또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문화생산자였던 만큼 그동안의 오랜 경험을 살려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부산문화회관 제2대 개방형 관장으로 취임한 이승호 신임 관장. 1979년 부산MBC에 PD로 입사해 그동안 부산MBC 편성국장과 드라마제작단장, 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이승호 신임관장은 2011년 부산시 문화상 ‘언론출판 부문’을 수상하기도 한 부산토박이다.

부산토박이로 평소 부산에 도움 되는 일을 하고 싶어했던 그의 바람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는 이승호 관장은 한편으로는 변화가 필요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부산문화회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이승호 관장은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한 취임식에서 투명과 원칙, 소통 경영을 특히 강조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경영’과 ‘원칙을 지키는 경영’, 관객과 예술인, 부산문화회관 전 가족이 공감하는 ‘소통의 경영’ 자세라면 지금의 힘든 난관을 잘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지금은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산문화회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변화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관행이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산문화회관 구성원들과 이미지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승호 관장은 부산시민들과 예술인, 예술과 행정을 잇는 예술경영의 마인드

와 부산문화회관 정상화에 팔을 걷어 올린다는 각오로 시민과 함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예술전문가가 아니라는 우려, 걱정의 소리를 들은 바 있다는 이승호 관장은 지난 30여 년의 방송사 생활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해온 생산자였던 만큼 문화예술장르 분야에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의 새로운 도전에 임하고 있다.

프로듀서 재직 중 부산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3년간 제작한 바 있어 부산 지역 문화 예술인들과도 친밀하게 교류해 온 이승호 관장은 당시 크고 작은 공연장 촬영, 문화계릴라 이윤택과의 만남, 가마골 소극장 개관 등 당시의 즐거운 추억들이 많다. 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영어 드라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온 이승호 관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2012년에는 번역서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만드는 스토리기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동안 부산문화회관의 기획공연이나 예술단 공연이 일반 시민들보다는 일부 매니아 층과 전공가족, 예술인들이 주로 찾았던 제한적인 공간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는 이승호 관장은 앞으로는 부산문화회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산시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친숙한 시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개방형 관장인 만큼 시민들은 물론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장인정신이 예술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교량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술단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연을 만들고, 부산문화회관 무대에 오르는 예술인들이 불편 없이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부산문화회관이 시민들로부터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새롭게 출발한 이승호 號. 그와 함께 만들어갈 부산문화회관의 변화에 기대가 크다.

# 허베이성(河北省)에서 은하수를 만나다

글 허정애 중국 통신원





“

중국 캠핑에서 한국과의 가장 차별성은 완전한 자연 속에서 캠핑하는 것이다. 중국에는 타클라마칸 사막보다 훨씬 더 광활한 초원지대가 있다. 주로 북부와 티베트 고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드넓은 초원 지대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오스트레일리를 제일로 꼽는다.

중국 내몽골 초원도 중국 전체 초원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점점 사막화 되어가는 황폐한 모습이 여행자로서도 안타깝다. 하지만 아직은 태평양처럼 드넓고 풀이 무성하며 높게 자라는 대초원을 보려면 내몽골 하이라얼을 중심으로 여행하면 된다.

베이징에 거주하면서 주말을 이용해 다녀오기 좋은 올 여름 마지막 초원 캠핑지인 중국 허베이성 동톈즈량(东甸自梁) 고산초원

으로 향했다. 3일에 한 번은 회색도시로 변하는 베이징을 벗어나 푸른 초원과 하늘을 만나 진정한 힐링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허베이성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열하라고도 불리는 청더의 피서 산장을 비롯해 문화유적과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 많은 관광지 중 하나이다.

둥톈즈량 고산초원은 보통 차산 트래킹을 위해 거쳐가는 지대이다. 북쪽으로는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인 소오대산과 공중초원의 사이쯤에 위치해 해발이 약 2,159미터가 되며 봉우리마다 풍력발전기들이 들어서 풍차가 돌아가는 모습이 제법 낭만적이다. 한 여름에도 평균기온이 15℃여서 더위를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둥톈즈량을 가장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모든 자연이 만발해지는 6월부터 9월까지이다. 특히 아직은 개발이 시작 안되어서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을 즐길 수 있으며, 해발이 높은 곳이어서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과 초원 자체의 청정한 공기, 이른 아침 해 뜨는 풍경이나 주위가 안개에 휩싸이는 모습이 장관이다.

알고 지내는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한 여정이라 편한 것도 많고 오히려 신경 쓸 것도 많아 귀찮음도 있었지만, 역시 즐거움이 더 큰 듯하다. 1박의 캠핑을 위해 베이징에서 200km가량 떨어진 둥톈즈량을 가는 길에는 가끔씩 만나는 양떼가 차도를 건너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무리 속에 갇혀 있기도 하며 왕복 15시간 이상을 길에서 허비해야했지만, 올 여름 은하수 캠핑은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값어치가 있다.







베이징을 출발하여 웨이셴이 가까워지자 도로 옆으로 기막히게 아름다운 산세가 펼쳐진다. 이렇게 산세가 아름다운 이유는 산시성과 허베이성으로 가르는 타이항산맥과 형산이 합류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막상 동덴즈량 초원에 도착하면 나무가 무성한 숲이 아니라, 구름처럼 평탄한 산 위로 초원이 펼쳐진다.

비교적 길이 잘 트인 등산로는 자갈과 바위길에 얽혀 자칫 무미건조해 보인다. 그러나 소나양들이 만들어낸 산 중턱의 계단식 소로길을 따라 자유롭게 걷다 보니 그곳에는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파노라마로 펼쳐진 풀밭, 한가로이 뛰노는 말들, 초원을 뒤덮은 야생화 물결이 장관이다. 초원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 양귀비, 솜털꽃, 개양귀비꽃, 이질 풀꽃, 금련화, 패랭이 등 다양한 꽃들의 릴레이로 색깔은 화려하지 않지만 지면에 낮게 깔려서 멀리서 보면 마치 이슬처럼 영롱하게 반짝이는 수수한 꽃들의 잔치도 볼거리다.

함께 간 중국 친구들은 사진 찍을 작정을 하고 왔다. 낮에는 옷 바꿔 입어가며 여성스럽게 사진 찍고 저녁에는 은하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연신 찍으며 작품활동을 한다. 이 또한 여행의 재미이다. 그름을 선택해 날짜를 잡아서인지 은하수와 밤하늘의 별들이 선명하다. 처음으로 별 궤적 사진에도 도전해보고 인터넷에 소개된 회오리 별무리 합성법도 시도해 볼 수 있었다.

8월 20일부터 2주간은 베이징 외곽을 나서기가 까다롭다. 베이징은 항일전쟁승리기념 70주년 행사로 차량 2부제와 외곽 지역 검문을 강화한다고 공고했다. 비교적 삼엄하니 베이징 근교로의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 동래의 화가 변박, 그는 역사의 주류 안에서만 살았다

글 강남주 전 부경대학교 총장

변박(卞璞)은 궁중의 도화서 화원 출신이 아니었다. 물론 한양에서 활동했던 당대의 이름 높은 화원도 아니었다. 화가로서 출세의 지름길이었든 도화서 화원 출신이 아니었기에 당대에 명성을 날리지도 못했고 미술사에 우뚝 솟았던 화가의 반열에 들지도 못했던 인물이다.

아직도 그의 생몰년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역사의 주류 안에서 활동했던 화가다. 출생은 1741~2년생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객인상필화’라는 책을 쓴 일본인 관상가가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렇게 추정했던 것에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한 해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가 그린 마지막 그림이 1783년이니까 그 이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동래의 화가였던 그는 조선통신사 사행원으로 1763년 일본에 갔다가 이듬해에 오게 된다. 화원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정사 조엄(趙鵬)에게 발탁됐기 때문이다. 화원으로 발탁되었음에도 사행원의 자격은 화원이 아니라 선원이었다.

그는 한양에서 보면 왜구가 출몰하는 변방, 부산 동래에서 18세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왜구로 인해 군사적 요충지가 된 동래성의 군사관계 관청인 무청에서 일했다. 동래성이 생업의 터전이었고, 거기서 열심히 일해 남보다 빠른 승진을 한 무인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에겐 꿈이 있었다. 활이나 손질하고 창이나 닦아서 출세해봤자 중인의 신분으로서는 그의 끝은 뻔했다. 그것을 뛰어넘고 싶었다. 반상의 서열이 뚜렷한 계급사회에서 신분상승의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문(文)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었다.

틈이 나면 그는 사서삼경을 읽었다. 붓을 들어 문인화도 그렸다. 무인도 계급이 높아지면 높은 수준의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했다. 말하자면 문은 무인에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필수

교양과목이었던 셈이다. 변박은 양반이 되고 싶어 그 교양과목에 충실했던 것이다.

노력하는 변박이 당시 동래부사였던 조엄의 눈에 띈 것은 1757~8년 무렵이다. 그림을 그리고 한시를 짓는 그의 재능을 눈여겨봤던 것이다. 그래서 그를 불러 한시도 짓게 해보고 그림도 그려 보도록 했던 것이다. 그의 재능을 알아봤던 조엄은 그러나 1758년 12월 경상도 관찰사로 승진해 동래를 떠나버렸다. 그와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나게 됐던 것이다. 그림을 그려봤자 알아주는 이도 없기에 실의에 빠져 있던 그가 1년이 좀 더 지난 어느 날 새로운 동래부사 홍명환 앞에 불러 나갔다. 스무 살이 될까 했던 1760년의 일이다.

“숙종대왕 시절에 권이진 동래부사의 지시로 그렸던 부산진 순절도와 동래부 순절도를 본 일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너무 낡았으니 다시 그렸으면 한다. 한번 그려 보거라.”

그는 비단 바탕에 수묵 담채로 큼지막하게 부산진 순절도와 동래부 순절도를 그렸다. 가로 96cm, 세로 145cm의 당시로서는 큰 그림이었다.

부산진 순절도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4월 13일과 14일 부산첨사 정발장군이 바다와 육지로 밀려드는 고니시 유키

나가 왜군과 맞서 부산진성에서 죽음의 항전을 하는 장면이다. 동래부 순절도 역시 같은 크기로서 다음 날인 4월 15일 송상현장군이 동래성에서 죽음의 항전을 하는 치열한 저항 장면을 그린 것이었다.

“한 폭의 그림이 깊은 참호와 높은 성담과 굳은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 하겠다.”

홍명한 부사는 변박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한 뒤 이 두 그림을 안락서원에 걸게 했다. 뒷날 보물 제391호와 제392호가 된 그림이다. 이 그림을 그린 뒤 변박에 대한 화가로서의 명성은 드디어 날개를 달게 된 것이다.

그러나 화가로서의 그의 재능은 명성을 얻기 이전 이미 조엄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터다.

그런 조엄이 동래 부사에서 경상도 관찰사로 승진해 동래를 떠났던 것이다. 그 얼마 뒤 임금은 그를 다시 조선통신사 정사로 임명한다. 그래서 1763년에 일본에 갔다가 다음 해에 오게 된다. 조선통신사는 최고위직인 정사와 그 다음직인 부사와 종사관, 그 외에도 많은 전문직 등 한꺼번에 거의 5백 명에 이르는 사행원으로 구성되었다.

조선통신사의 대부분의 중요직은 한양에서 정해졌다. 삼사 외에 제술관, 서기, 역관, 화원, 의원 등은 변방에서 발탁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림에 재능이 뛰어났다고 정사가 인정하고 있던 변박이었지만, 도화서원 출신 김유성이란 사람이 1763년 사행단 화원으로 이미 궁중에서 임명된 이상 정사로서는 따로 화원을 선발하는 일을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조엄 정사는 재량권을 발휘했다. 변박을 조선통신사 사행선의 선장으로 채용했던 것이다. 배의 구조를 익히고 항해술을 익히기 위해 그를 통영진으로 보냈다. 통영진에서는 사행선 6척 가운데 4척을 건조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엄정사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경상우수영이 있는 통영의 선박 건조장인 선소로 간다. 거기서 사행선 건조를 돕고, 건조한 사행선을 타고 항해술을 익힌 뒤 기선장이 된다. 기선은 정사, 부사, 종사관이 타는 세 척의 배를 가리



보물 제392호로 지정된 '동래부순절도'는 송상현장군이 동래성에서 죽음의 항전을 하는 치열한 저항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키며 식품과 선물 등 주로 화물을 싣고 가는 배는 복선이라고 불렀다.

그는 제3기선장으로 좌수영으로 돌아와 그해 10월 6일 일몰로 떠나게 된다. 물론 기선장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준비는 빠트리지 않았다.

부경대학교 총장, 부산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한 강남주 시인은 2002년 조선통신사문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조선통신사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오늘에 되살리는 일에 매진해왔다. 2013년 문예연구 여름호 신인공모에 단편 '풍장의 꿈'이 당선돼 소설가로 활동영역을 넓힌 강남주 시인은 요즘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공단속의 문화 무지개

## - 홍티아트센터, 홍티문화공원

글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인제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홍티 마을’은 무지개 마을이다. 아미산 서쪽 사면 능선에 무지개 고개(虹峙)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마을 동쪽은 아미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은 낙동강이 바다로 유입되는 하구와 맞닿은 포구 마을로 김 생산지로 유명하였다. 마을 서쪽 해안이 매립되고 ‘무지개 공단(工團)’이 조성된 이후, 마을 앞 해안은 좁은 수로 형태로 남겨지며 소형 어선만 외로이 떠 있다. 안장림과 다대포 사이에 해안에 있었던 해식동굴 홍티 동굴이 있었으나, 공단 조성으로 해식애가 절개되면서 없어졌다. 남쪽으로 다대포 해수욕장과 다대포 객사(多大浦客舍)가 있고, 아미산 남단 종턱에는 낙동강의 낙조를 즐길 수 있는 아미산 전망대가 내려다보고 있다. 공단이 조성된 이후 산 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단에 포함되며 옛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홍티 포구는 명칭만 남겨져 있고 기능은 거의 상실되어 가고 있다. 무지개 공단 앞 남북으로 흐르는 도로의 제방에 서면 낙동강의 낙조와 철새, 을숙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다. ‘홍티아트센터’와 ‘홍티문화공원’은 삭막한 공단지역에 문화라는 포석을 놓듯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홍티아트센터’는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에서 출발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는 2007년 폐건축물 재활용 기업의 공간 기부로 처음 5명 가량의 예술가로 시작하여 회화, 조소, 섬유, 금속, 도자, 목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가 입주하였고, 이들에게 기숙사와 공방, 전시와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하며 ‘공단 속 문화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 후 4년, 2011년 지원하던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문을 닫고 만다. 부산시와 사하구가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형평성 논란 때문에 무산되었다. 이후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은 서부산권 예술인 창작 공간을 조성키로 하고 인근에 ‘홍티아트센터’와 ‘홍티문화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 문화 공장이라는 박스

‘홍티아트센터’는 설치 미술 중심 창작공간이다. 1층은 전시와 다목적 행사를 위한 층고가 높은 전시실과 대규모 작업을 위한 공동작업실, 입주작가의 개인 작업을 위한 스튜디오와 회의실,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고, 2층으로 오르면 입주작가의 개인연구실, 외부 작가를 위한 게스트 룸, 세미나실, 공동 주방 겸 휴게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의 중정은 2층을 지나 하늘을 담으며 다소 폐쇄적 구성의

건축물에서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홀과 면한 포켓식 정원은 앞으로 펼쳐진 '홍티문화공원'을 내부로 끌어들이며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전시실은 설치 미술의 특성상 높은 층고를 유지하며 전시는 물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설계자인 조서영 건축가<sup>2)</sup>(이상석<sup>3)</sup> 건축가와 협업)는 "공단지라는 입지적 특성과 입주 작가의 성향을 대변하는 금속 재질, 즉 내후성 강판<sup>4)</sup>으로 조형성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공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박스형 공장의 금속성 패널은 입면의 내후성 강판으로 치환되며, 창작 작업과 문화 공장이라는 박스로 표현되고 있다.

## 홍티둔병

'홍티문화공원'은 "도시공원 예술로 부산 홍티둔병 프로젝트라는 다소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공예술프로젝트로, 공원이라는 장소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계자인 장영철, 전숙희<sup>5)</sup> 건축가는 설명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당초 제목은 '사구둔병'이었다. '사구'란 모래언덕을 말하는 것이고, '둔병'은 예전 농사를 위하여 물을 가두어 두었던 물웅덩이를 지칭한다. 장영철 건축가는 "여기서 둔병은 모래언덕(사구)을 가두고 있는 사각형의 공간이 되고 그리고 사각형 공간들 사이에 두렁길을 두어서 사람들이 모래공간을 여기저기 누빌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며 설계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구둔병의 개념은 부산광역시와 사하구청의 모래에 대한 의견차이로 잔디와 나무로 둘러싸인 공원의 모습으로 변했다. 둔병과 사구는 공단 조성으로 사라진 홍티 마을의 기억일 것이

다. 둔병은 홍티 마을이 가졌던 계단식 농지의 기억이고, 두렁길은 둔병이 갖고 있는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5개의 둔병과 2개의 전시공간 그리고 휴게 공간과 조경공간은 입주작가 또는 외부 작가의 전시 공간이 되기도 하고, 공단지역의 오픈된 커뮤니티 공간이 되기도 하고, 작가의 작업 마당이 되기도 한다. 둔병과 둔병사이에 설치된 손뽀주 작가의 '바람의 드로잉'은 지역 주민의 참여로 계속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천대광 작가의 '뒤집힌 배'는 포구라는 기억을 되새기게 한다.

도시는 사람과 문화와 산업과 어울리며 성장해 나간다. 이는 도시의 기본구조이자 도시의 밑그림이 된다. 사람이 없는 도시는 심장이 없는 도시이고, 문화가 없는 도시는 머리가 없는 도시이고, 산업이 없는 도시는 다리가 없는 도시와 같다. 산업화 이후 도시는 심장과 머리를 잃은 채 오직 다리만 있는 도시 건설에 치중해 왔다. 산업화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단 속에서 사람이 함께하는 문화라는 무지개는 건조한 공단지역의 하늘 위에 떠 있다.



- ① 홍티문화공원과 홍티아트센터-전경과 손뽀주 작가의 '바람의 드로잉' ©강기표
- ② 홍티문화공원-아경 ©노경
- ③ 홍티아트센터-전경 ©이인미



- 1) **다대포 객사(多大浦客舍 : 부산유형문화재)** 조선시대 관아 건물로서 마을 수령이 초하루와 보름에 망배를 드린 곳이며, 사신의 숙소로도 이용하였다.
- 2) **조서영**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서원건축사사무소를 개소, 운영하고 있다.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이사, 동의대 겸임교수를 역임, 현재는 동서대학교 겸임교수로 출강 중이다. 주요작품으로는 '글마루 작은도서관' '푸른솔경로당' '보수동주민센터' '범천동 버스정류소' '중앙동 지하철역 북하우스' 등이 있고,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신인건축가상, 대한민국공공건축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부산다운건축상, 국토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3) **이상석** 경성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 홍익대 건축도시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11년부터 건축사사무소 상성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작품으로는 '글마루 작은도서관' '푸른솔경로당' '보수동주민센터' '시랑리 트러니아' '홍티아트센터' 등이 있다.
- 4) **내후성 강판** 건축·교량·철도·차량 등 특히 비바람에 노출되는 곳에 사용되거나, 또는 공장지대의 대기오염을 받는 곳, 해안지방에서 염해를 받는 곳 등에 사용되는 강판으로 표면에 산화피막이 형성되고 이 피막이 더 이상 녹슬지 않게 한다. 약 5년에 걸쳐 일정량으로 부식되는 외피가 스스로 코팅 막을 형성하고 영구적으로 재료의 강성을 지속시킨다. 이 재료의 가장 큰 매력은 시간이 가면서 재료의 모습이 바뀌어 간다는 것이다. 부식되어 나타나는 아름다운 색채가 시간을 먹으며 익어간다.
- 5) **장영철+전숙희 | 와이즈 건축** 장영철 건축가는 미국 뉴욕주 등록건축사(AIA)이다. 1997년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U.C. Berkeley에서 수학하였다. 전숙희 건축가는 미국 뉴욕주 등록건축사(AIA)이다. 1998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Princeton University에서 수학하였다. 이로재, Gwathmey Siegel & Associates Architects 등에서 실무를 한 두 건축가는 함께 WISE Architecture을 2008년에 개소하여 건축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 서울 가회동에 'Dialog In the Dark' 복촌을 완성하였다. 현재 여러 집단과 연결되어 건축 높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3년 공공예술 프로젝트인 홍티둔병을 부산 사하구 무지개 공단에 기획 및 설치하였다. 2011년에 대한민국 젊은 건축가상을, 2012년에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으로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관객의,  
관객에 의한,  
관객을 위한

# 모퉁이극장

관객문화전용관

중앙동에 자리한 추억의 '40계단' 정면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다닥다닥 붙은 건물 사이에 '모퉁이극장' 간판이 보인다. 지나간 상영회 포스터를 따라 4층 계단을 천천히 오르다보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관객문화전용관' 모퉁이극장을 만날 수 있다.

모퉁이극장 대표로 있는 김현수 씨가 '제대로 된 관객문화운동을 펼쳐보자'는 취지로 사비를 털어 지난 2012년 5월 문을 연 모퉁이극장은 올해로 개관 4년째로 접어들면서 관객이 중심이 되는 '관객의 극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극장 이름인 '모퉁이'는 그가 활동했던 무성영화 세미나의 이름이자 영화 '유브 갓 메일'의 원작으로 알려진 헐리우드 영화 '모퉁이가게'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

"오늘날 관객이라 하면 흔히 언론에서 떠드는 천만관객이라는 숫자로서만 존재합니다. 모퉁이 극장은 관객이 '대상'이 되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관객 스스로 주체가 되어 관객을 응원하는 관객문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있기에 모퉁이극장이 있다는 그는 관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관객들간의 관계맺기를 유도한다. 더욱 풍성한 '관객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모퉁이극장에서는 관객들의 삶과 밀착된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면서 영화관련 서적이거나 영화 잡지, DVD 등 기존 영화관련 단체





들의 라이브러리 항목들 뿐만 아니라 인문학 서적에서부터 독립영화잡지, 문화 관련 전단지 및 엽서 외에도 작가들의 서명, 예술가들의 얼굴이 그려진 파일첩, 그리고 무엇보다 극장을 방문한 관객들이 손수 작성한 '내 인생의 영화 10편' 목록을 만날 수 있다.

모퉁이극장에서는 그동안 비정기 상영회를 통해 일반 상영관에서 만날 수 없는 다양한 독립영화, 실험영화를 소개해왔으며, 더불어 관객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지난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를 앞두고 부산국제영화제 시민 참여프로그램으로 열렸던 '모퉁이 관객 살롱'은 국내 최초로 비전문 영화인으로 구성된 관객 프로그래머 9명이 영화 프로그래머로 참여, 그들이 직접 선정한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프로그래머와 영화가 절묘하게 겹쳐진 영화포스터는 지금도 모퉁이극장 벽 한켠을 장식하며 그날의 열

린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다. 모퉁이극장에서는 관객들이 직접 프로그래머로 참가하는 '관객영화제'를 10월,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5월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관객들이 기획에서부터 행사 안내와 진행, 영사, 관객 토크 등 모든 것을 맡아 운영하는 '애프터 시네마 클럽(After Cinema Club)'을 개최해 주목받았다. 모퉁이극장이 개관 후 마련한 첫 정기프로그램으로, 그동안 모퉁이극장이 주관한 관객문화 워크샵과 지난 3월 처음 열렸던 '제1기 관객문화교실'을 이수한 관객문화활동가들이 맡아 진행한 '애프터 시네마 클럽'은 영화 감상 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 토크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이 컸다. '애프터 시네마 클럽'은 10월 두 번째 행사가 개최되며, 앞서 9월에는 관객문화활동가들을 배출하는 맞춤형 영화교양강좌 '제2기 관객문화교실'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관객문화활동가들은 앞으로 모퉁이극장이 주관하는 영화 관련 행사, 관객 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객들의 문화활동을 응원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또, 모퉁이극장에서는 지난 2012년 '2012 메이드인 부산독립영화제'와 지난해 '제31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기간동안 관객리뷰단을 운영하면서 관객들의 다양한 소리들을 기록해왔다. 한편의 영화를 보고 그 감상을 글로, 혹은 그림, 사진으로 기록한 다양한 리뷰들은 오직 관객의, 관객에 의한, 관객을 위한 잡지인 '모퉁이극장' 1, 2호에 게재되면서 소중한 자료로 남게 되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관객층을 발굴해 관객들간의 연대를 형성하고 관객들의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해나가는데 더욱더 힘을 예정입니다.”

운영경비를 대부분 사비로 충당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지금껏 해왔듯이 하나둘씩 앞으로 나가다보면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다는 김현수 대표. 시 구절 '모퉁이가 없었다면 골목이 아니 듯' 좋은 관객 없는 좋은 영화는 없다는 믿음으로 모퉁이극장은 오늘도 또 묵묵히 한걸음을 내딛는다.

■ 문의/모퉁이극장(600-4044, blog.naver.com/cornertheate)

# 오륙도문화예술연구회

남구의 상징이자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 그 오륙도에서 이름을 가져온 오륙도문화예술연구회는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화를 즐기고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륙도문화예술연구회는 지난 2013년부터 남구지역 문화 활성화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주민이 하나둘씩 의기투합, 지난해 11월 3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남구구보 편집장을 역임하고 오륙도신문 대표로 있는 하인상 씨가 초대 운영위원으로 선출됐으며 향토사연구분과, 공연예술분과, 교육콘텐츠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의 향토사학자 왕정문, 공기화 씨를 비롯해 소설가 곽태욱 씨, 김옥련 전 오륙도여성합창단 단장과 '오륙도 패밀리'를 작사, 작곡한 작곡가 겸 가수 박건우 씨, 만화가 강길수 씨, 캘리그라피 작가 허은주 씨, 연극인 이환 씨, 가수 성형국, 김강수 씨 등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주민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문화컨텐츠를 개발해 지역 일자리까지 창출해내는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륙도문화예술연구회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지역의 문화원형 찾기. 지역의 문화 원형을 찾아 스토리텔링을 통한 다양한 문화컨텐츠 개발하기 위해 오륙도문화예술연구회는 향토사학자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이기대의 역사를 재조명한 '소설 이기대'를 지난 11월 출간했다. '소설 이기대'는 임진왜란 당시 두 기생이 왜장을 안고 바다로 뛰어든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향토사학자 왕정문, 공기화 씨와 소설가 곽태욱 씨가 의기투합해 지역 토박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문헌 등을 통해 확인된 당시 생활상을 바탕으로 두 기생의 삶과 죽음을 묘사했다. 그 해 12월에는 '소설 이기대'를 연극으로 재구성한 '두 기녀의 순절이야기'를 제작, 3차례 무대에 올려 전 공연좌석이 매진되는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오륙도문화예술연구회는 앞으로 장르를 확대시켜 인형극과 마당극,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문화컨텐츠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회원들의 재부기능도 활발하다.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밑 나무데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5 문화난장 우리동네 놀이터'는 주말이면 1만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인 오륙도에서 열리는 최고의 문화행사로, 통기타공연에서부터 색소폰·아코디언 공연, 국악과 시낭송 등 각종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남구의 명소 오륙도를 자연스럽게 알리면서 지역 문화사절단으로 큰 활약을 펼



치고 있다.

'찾아가는 오륙도가요제' 역시 지역민들의 호응이 크다. 지역 문화 창달과 주민 여가 선용을 위해 기획된 찾아가는 오륙도가요제는 지난 2월 운선자 웰빙센터를 시작으로 조상영웃음연구소, 용호종합사회복지관·남구노인복지관·남구종합사회복지관 노래교실, 그랜드자연요양병원 등 지역 복지관과 병원 등을 찾아 매달 가요제를 열어오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26일 부산예술회관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찾아가는 오륙도가요제' 월별 수상자들을 모아 연말 결선을 펼치기도 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강좌도 인기이다. 올해 부산문화재단 '2015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카툰(만화)으로 자서전 펴냈어요'는 자녀와 학부모, 조부모 등 3대가 참여해 만화로 할아버지, 할머니 일대기를 기록, 책으로 펴내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상반기에 1기생 20명을 배출하고 현재 2기생 20명이 수업을 받고 있다. 기타리스트 황승환 씨의 지도로 매주 수요일에는 해군작전사령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교실도 진행하고 있다.

그외에도 지난 6월, 주부극단인 'Miz극단'을 창단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두 기녀의 순절이야기'를 연출한 연극인 이환 씨가 지도를 맡고 있는 Miz극단은 앞으로 소외된 아이들, 외롭게 내몰린 노인들, 방황하는 사람들의 희노애락, 이해 단절과 애정이 식어버린 가족들의 모습을 도시민들의 생각과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8월 1일에는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고 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돕는 '착한청년들이 나섰다. 대학로 따뜻한 장터'를 한국대학문화연합회 공동 주최로 부경대학교 가로수길 일원에서 열기도 했다.

■ 문의/오륙도문화예술연구회(622-4075, cafe.daum.net/oryukdoculture)

# 울산의 DMZ 회야댐 생태습지 힐링여행

2015년 에코투어 두 번째 여행지는 울주군 회야댐 생태습지와 장승포 고래박물관. 9시부터 진행되는 생태탐방 일정 때문에 이른 아침 부산문화회관에 모인 정기회원 가족들의 얼굴은 여느 때 보다 밝다.

여행날인 8월 14일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탓에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동행한 가족 참가자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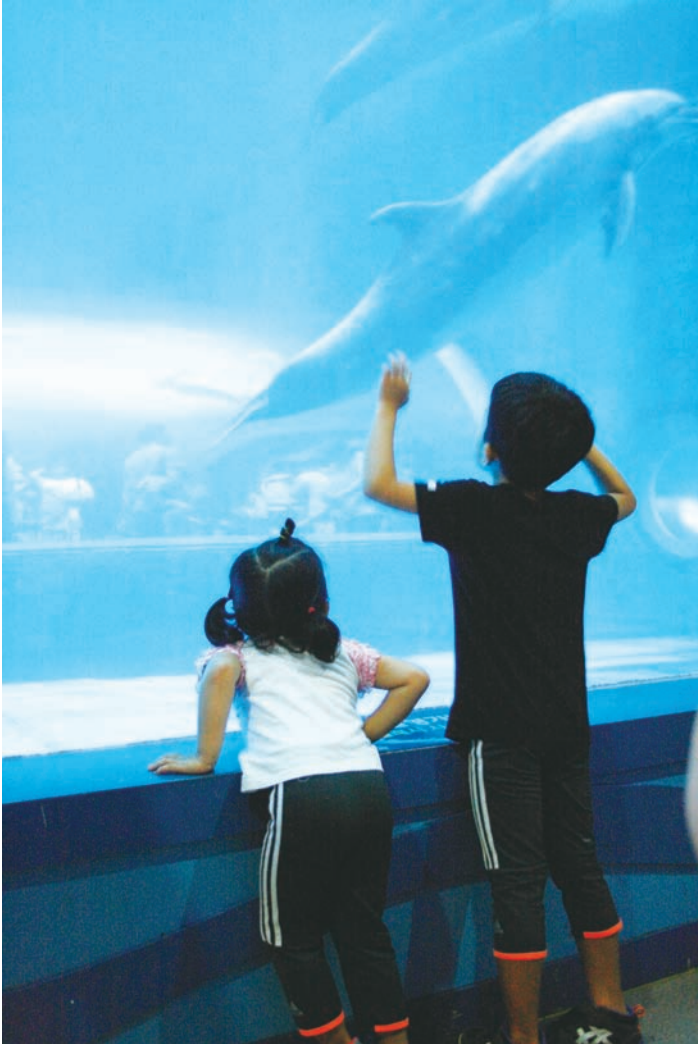




오전 목적이인 회야댐은 울산시민들의 주 상수원으로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울산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3차에 걸쳐 회야댐 상류에 수생식물과 연꽃단지를 조성해 지금은 전국 최고, 최대의 연꽃단지로 입소문이 났다. 생태습지는 갈대와 부들, 연, 노랑어리연, 도루박이, 부처꽃 등이 심어져 있는데, 총 면적이 17만3000여㎡에 이른다. 회야댐은 울산시에서 상수원 신외와 환경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연꽃이 만개하는 7월~8월 중 한달간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탐방객을 1일 100명에 한정하고 청정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야댐은 ‘울산의 DMZ’로 불리기도 한다.

부산에서 한 시간을 달려 생태탐방이 시작되는 통천초소에 도착했다. 생태 해설사와 정기회원 가족들은 걸어서 생태습지까지 왕복 4.6km 구간을 이동하면서 지난 1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청청 자연과 만났다. 생태해설사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숲길을 40여분 걸어 들어가니 넓게 트인 연꽃 단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처음으로 만나는 장관에 모두들 탄성을 지르며 생태해설사의 설명에 집중했다.

“놀랍죠. 이런 장관이 펼쳐질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의 자정력을 높여 최고의 상수원을 만들기 위해 오랜시간을 들여 부들과 갈대, 연꽃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꽃 단지에서 수확한 연근으로 만든 무공해 연근차를 텀으로 마시니 도시의 묵은 때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 데크를 걸으며 색색의 연꽃에 흠뻑 빠진 정기회원들은 함께 하지 못한 가족들과 내년엔 꼭 다시 찾으리라는 다짐을 하고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점심 식사 후 정기회원 가족들은 울산의 또 다른 자랑인 고래박물관으로 이동했다. 오전의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8월 14일 임시공휴일을 기념해 고래박물관과 고래생태체험관이 무료로 개방되면서 고래박물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고래잡이 전진기지였던 장생포에 건립된 장생포 고래박물관은 1986년 포경이 금지된 이래 사라져가는 포경유물을 수집해 보존, 전시하고 고래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고래박물관이다. 이곳에서는 매표소, 가로등, 아이스크림 등 모든 것이 고래모양이다.

고래박물관 본관 외 고래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고래생태체험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돌고래 수족관으로 바다 어류수족관과 생태 전시관, 과거 포경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디오라마가 전시되어 있어 장생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고래생태체험관 최고의 인기스타는 고아롱과 장꽃분, 고다롱, 장두리 네 마리의 고래들이다. 고래 먹이 주는 시간에 맞추어 가면 네 친구들의 재롱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 고래를 만나기 위해 먹이주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최고 스타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자리를 잡지 못한 회원들은 해저터널에서 네 친구들의 재롱을 보며 아쉬움을 달랬다.

오후 많은 사람들로 지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오전 회야담 생태습지의 아름다운 연꽃단지를 떠올리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 후원 :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에코투어2**



하동 지리산 생태과학관

**10월 2일(금)**

## 하동 지리산 생태탐방

지리산을 품고 있는 하동을 방문,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지리산생태과학관에서 자연을 느끼며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학습하며 각종 생태 체험활동을 진행,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하동 지리산생태학습관 도착, 해설사와 함께 지리산 자연탐방
- 12:30 중식
- 13:00 매암치박물관 방문, 차만들기 체험
-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5:30 골목길 갤러리 탐방
- 16:30 부산으로 출발



합천 해인사

**11월 13일(금)**

## 합천 해인사 소리길 탐방

해인사에서 홍류동 계곡 약 6km 길이에 7개의 다리, 길이 500m에 이르는 데크, 오솔길들이 서로 이어져 있는 문화생태탐방 명소 '소리길'과 소리길을 품고 있는 해인사의 역사탐방을 함께 진행, 역사와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해인사 도착, 해인사 탐방
- 11:30 중식 후 자유시간
- 13:00 생태해설사와 소리길 탐방(2시간 소요)
-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00 부산으로 출발

### 9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김민희(수영구 수영로)  
김세희(해운대구 마린시티로)  
문용식(수영구 금련로)

박미정(부산진구 전포대로)  
손소리(연제구 과정로)  
이경진(금정구 금강로)  
임영환(기장읍 기장대로)  
조민희(남구 유엔로)  
조예순(해운대구 좌동순환로)  
진영규(북구 대천천길)

#### 기존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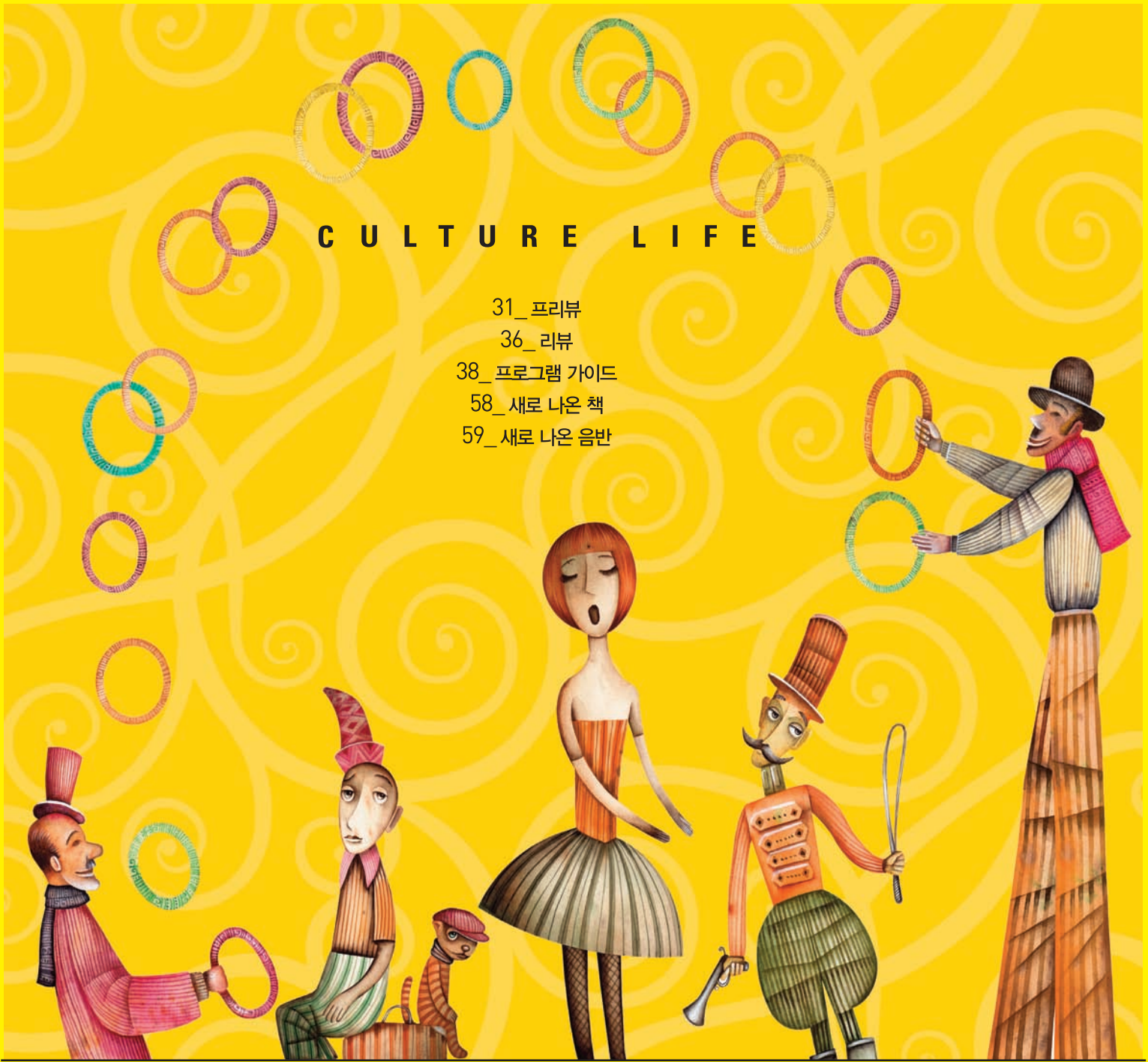
김강영(동래구 복천로)  
김광열(부산진구 양지로)  
김연희(사상구 양지로)  
김은경(남구 유엔로)  
김철호(수영구 과정로)  
박종길(남구 유엔평화로)

송만호(부산진구 백양관문로)  
안귀녀(영도구 감지길)  
윤지선(해운대구 좌동순환로)  
전상호(해운대구 대천로)



# CULTURE LIFE

- 31\_ 프리뷰
- 36\_ 리뷰
- 38\_ 프로그램 가이드
- 58\_ 새로 나온 책
- 59\_ 새로 나온 음반



##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울속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뜨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탈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9.9(수)-12(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문화회관이 지난해 부산시민들의 클래식 갈증을 해소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음악축제를 만들기 위해 첫선을 보인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2015년 무대가 오는 9월 9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지휘자 금난새가 음악감독을 맡아 아름다운 실내악의 향연을 펼칠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활발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외 실내악팀 7개팀이 참가, 축제가 펼쳐지는 나흘 동안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음악감독을 맡은 지휘자 금난새는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늘 청중과 호흡하는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온 클래식 음악계의 스타이다. 지난 1998년부터 '벤처 오케스트라'인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현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금난새는 특히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로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전회 전석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금난새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로 청중들에게 더욱 친근한 음악회로 다가갈 예정이다.

2015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에서는 우선 해외 앙상블팀으로 1990년 창단한 후 1995년 네덜란드 헤를렌의 국제 챔버 앙상블 최우수상, 1995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는 체코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올해의 앙상블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체코의 트리오 마티누(Trio Martinu)와 2003년 브라티슬라바 콘서바토리에 재학중이던 멤버들로 창단된 후 2010년 프라하 Bohuslav Martinů 국제 콩쿠르 2등상, 2012년 Gianni Bergamo Classic

Music Award 3등상, 2013년 비엔나 Josef Windisch Prize, 2014년 안토닌 드보르작 국제 챔버 뮤직 컴페티션에 우승 하는 등 세계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슬로바키아 뿐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무차 콰르텟(Mucha Quartet), 글라스 하프라는 새로운 악기 연주에 도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남매 듀오인 폴란드의 글라스 듀오(Glass Duo)가 참여한다.

국내 앙상블 팀으로는 뉴월드 필하모닉(구, 유라시안 필하모닉)의 수석단원들로, 가족음악회, 도서관 음악회, 굿모닝 클래식, 정원음악회 등 다양한 형태의 실내악 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는 카메라타 S, 지난 2014년 창단 이후 다양한 구성과 새로운 시도로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가져온 앙상블 IN, 지난해 창단된 후 바로크에서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는 움 챔버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결성된 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이 참가한다.

### | 일정 |

- 9일 트리오 마티누, 무차 콰르텟, 글라스 듀오, 카메라타 S
- 10일 앙상블 IN
- 11일 움 챔버오케스트라
- 12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

입장료 R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 부산시립합창단 제158회 정기연주회

## 지휘자 박신화 초청 '합창으로 듣는 가을 소나타'

9.17(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박신화

카운터테너 정민호

오르가니스트 정경님

하피스트 김영립

퍼커셔니스트 박용갑

퍼커셔니스트 박병진

플루티스트 장예지

한국합창총연합회 이사장이자 현재 안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로 있는 박신화 초청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합창단 제158회 정기연주회가 9월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카운터테너 정민호, 오르가니스트 정경님, 하피스트 김영립, 퍼커셔니스트 박용갑, 박병진, 플루티스트 장예지가 출연, 혼성4부와 하프, 타악기가 어우러지는 레너드 번스타인의 '치체스터 시편'을 비롯해 세계민요, 한국가곡 및 가요 등 다양한 합창음악으로 가을밤의 정취와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부산시립합창단과 처음 호흡을 맞추는 박신화는 연세대학교 국립합창단을 비롯해 서울시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수원시립합창단, 성남시립합창단, 제주시립합창단, 한국남성합창단, 부산솔리스트앙상블 등 객원지휘자로 활동했다. 2002 세계합창심포지엄과 2003, 2006 몬타나 국제합창페스티벌에서 지휘를 맡았으며, 안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한 2011 로마 바티칸 초청공연, 2012 미국합창연합회(NWACDA) 초청공연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신화는 현재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지휘자, 이화챔버콰이어 지휘자, 이화여대 교수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의 메인곡이 될 레너드 번스타인 '치체스터 시편'은 음악적 전통이 깊은 영국 치체스터 대성당에서 열리는 1965년 Southern Cathedrals 축제를 위해 작곡된 곡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합창과 오르간, 하프, 타악기가 어우러지는 앙상블 무대를 위해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오르가니스트 정경님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하피스트 김영립,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인 퍼커셔니스트 박용갑, 서울시립교

향악단 객원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퍼커셔니스트 박병진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이번 무대에서 독창자로 무대에 서는 카운터 테너 정민호는 중앙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합창지휘, 연세대학교 고음악과정을 수료한 후 현재 바흐솔리스트 서울 솔리스트,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하피스트 김영립과 함께 낭만주의 시대의 프랑스 작곡가 클리몽스 드 그롱벨의 '우수의 왈츠'를 들려줄 플루티스트 장예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바이마르 리스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UKO(United Korean Orchestra), 부산플루트 앙상블, 플루트 콰르텟 '클랑'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2, 3108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23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 페스티벌

9.18(금) 오후 7:30 19(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국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을 노래하는 특별한 합창축제 '제23회 전국시립 소년소녀합창 페스티벌'이 9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1995년(4회), 2006년(14회)에 이어 세번째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 페스티벌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대구, 광명, 통영, 광주, 김포, 군포, 성남, 서울, 순천, 구미, 의정부, 김해, 안성, 창원, 과천 등 전국 16개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부산진구라온소년소녀합창단, 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 북구소년소녀합창단, 정관소년소녀합창단 등 부

적으로 시작된 후 현재 전국 20여 개 소년소녀합창단, 1천 2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합창축제로 발전해왔다.

첫날인 18일에는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시작으로 광명, 광주, 통영, 김포, 군포, 성남, 서울시합창단과 부산진구라온소년소녀합창단, 부산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이, 이튿날인 19일에는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구미, 의정부, 김해, 안성, 창원, 과천시립합창단과 부산북구소년소녀합창단, 정관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해 국내외 가곡 및 세계민요, 동요, 가요, 뮤지컬 넘버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합창음악으로 선사한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8일과 19일 이틀간 무대에 올라 코트라우 '산타루치아', 쿠르티스 '돌아오라 소렌토로', 카푸아 '오 나의 태양', 피아졸라 '리베르탱고'를 들려준다.

산지역 區 소년소녀합창단 4개팀이 특별출연해 꿈과 사랑, 희망을 담은 아름다운 합창음악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마이크 및 MR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 전통 클래식 악기들만 사용한 천상의 소리에 독특한 안무가 어우러진 진정한 소년소녀합창의 묘미를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 페스티벌은 지난 1992년 지역간 문화교류와 합창음악의 발전, 그리고 합창인구의 저변확대와 차세대 연주자 발굴을 목

### 18일 출연팀

부산진구라온소년소녀합창단(지휘/허종영, 반주/최여진)[특별출연]  
부산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엄현섭, 반주/이은혜)[특별출연]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권유진, 반주/이수정)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박훈, 반주/박혜진)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정혜, 반주/조안나)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윤영모, 반주/김봄)  
김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강희원, 반주/최현정)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남희, 반주/이미경)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박위수, 반주/양미파)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단장/원학연, 지휘/장지형)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전상철, 반주/이영옥)  
연합합창단(지휘/전상철, 반주/이영옥)

### 19일 출연팀

부산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철수, 반주/조미영)[특별출연]  
정관소년소녀합창단(지휘/차윤희, 반주/최지선)[특별출연]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최현욱, 반주/윤유리)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조덕현, 반주/변선영, 문소영)  
의정부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중호, 반주/권지선)  
김해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건륜, 반주/유송이)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장인순, 반주/엄진경)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성중, 반주/조금란)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마원희, 반주/박은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전상철, 반주/이영옥)  
연합합창단(지휘/전상철, 반주/이영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7, 3108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공연 3인 3색 음악회

9.18(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객원지휘 유용성

객원지휘 김경수

객원지휘 황미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작국악의 활성화와 젊은 지휘자 인재 양성을 위한 등용문으로 마련한 특별한 무대 ‘3인 3색 음악회’가 9월 1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3월 객원지휘자 공모에서 당선된 지휘자 유용성과 김경수, 황미나 등 3인의 객원지휘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역적 정서가 묻어나는 레퍼토리와 대중성을 가미한 곡들로 구성, 세 지휘자의 개성이 넘치는 3인 3색의 특별한 무대로 꾸며진다.

첫 무대를 열어줄 지휘자 유용성은 Korea Conducting Academy 이사, 예술집단 ‘예술하는 사람들’ 대표, 아템파우제 앙상블 예술감독 겸 지휘자, 세종국악심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자, 서울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지휘자, 상상국악챔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있으며 그동안 세종국악관현악단, 서울시청소년관현악단, 상상국악챔버오케스트라, 아템파우제 앙상블, 서울 내셔널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다. 지휘자 유용성은 이번 무대에서 황해도 지방의 민요로 널리 알려진 ‘몽금포타령’의 선율을 테마로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재현한 오윤일 곡 ‘몽금포주제에 의한 향(鄕)’과 지난 1994년 한·중·일 3국의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창단된 ‘오케스트라 아시아’ 창단 연주회를 위해서 작곡된 박범훈 곡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를 들려준다. 이 곡은 경기민요 ‘뱃노래’를 테마로 한 곡으로 오케스트라 아시아가 뜻을 달고 세계를 향하여 출범하는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이어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수석,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동인, 창원국악관현악단 지휘자로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경수가 또다른 빛깔의 무대를 펼친다. 지휘자 김경수는 그 옛날 어촌의 삶의 역사를 담

은 나나니 가락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의 노래와 관현악으로 풀어낸 박범훈 곡 ‘춤을 위한 나나니’와 이별의 쓸쓸하면서도 아쉬운 감정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오혁 곡 ‘국악관현악 고별’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오케스트라 지휘과, 미국 워싱턴 대학교 오케스트라 지휘과(석, 박사)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과 미국, 유럽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황미나가 장식한다. 워싱턴 대학교 지휘과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로 있는 황미나는 이번 무대에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세계적인 뉴에이지 음악 작곡가인 양방언의 대표곡 ‘프론티어’, ‘Prince of Jeju’와 고려가요 ‘청산별곡’을 주제로 완만한 곡선에 수많은 정감을 담고 있는 우리나라 산 등선의 아름다움과 고려시대 음악의 신비함을 표현한 김대성 곡 ‘국악관현악 청산(靑山)’을 들려준다.

입장료 R석 1만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3, 3105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1회 정기연주회 Peace

9.24(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초가을의 서정을 들려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1회 정기연주회가 9월 2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김범수가 지휘하고 바이올린을 전공했던 경북대학교 재학 시절 그의 스승이었던 윤수영 교수가 바이올린 협연을 맡아 특별한 무대를 펼친다.

첫 무대는 말러 교향곡 제2기의 포문을 연 교향곡으로 유명한 '교향곡 제5번' 중 '말러의 아다지오'라는 애칭으로 더욱 유명한 4악장 '아다지오토'를 들려준다. 오케스트라 정규 편성이 아닌 현악기들로만 이루어진 이색적인 편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으로, 느리게 들이키는 호흡과 여유로운 선율들의 움직임 속에서 깊은 명상 속으로 침잠해가는 과정을 호소력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자유스런 형식의 구성으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이후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이자 독자적인 멜로디의 전개로 낭만주의 전통의 극치라고 평가받는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사단조 작품 26'. 이 곡은 브람스, 베토벤, 멘델스존,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에 이어 5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브루흐의 최고작으로 손꼽힌다.

바이올린 협연을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윤수영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야사 하이페츠의 가르침을 받으며 아티스트 디플롬을 취득했다. 동아콩쿠르, 중앙콩쿠르 등 국내외 주요 콩쿠르 입상과 5·16 민족상 음악상, Orang Coast Symphony competition, North Carolina Symphony competition, Ima Hog competition(Houston), Young musicians Foundation competition, 캘리포

니아 주립대학교 최고 연주자상 등을 수상한 윤수영은 홍콩 필하모닉과 롱비치 교향악단, 산타 바바라 교향악단, KBS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했으며, KBS교향악단, 코리아 심포니, 서울시립교향악단, 충남도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경북도립교향악단, 스포캔 교향악단, 롱비치 교향악단, 오마하 교향악단, 홍콩 교향악단, 하빈 교향악단, 센다이 교향악단, 삿포로 심포니 등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왕성한 연주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윤수영은 현재 카메라타 서울 앙상블의 음악감독 겸 리더를 맡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원숙의 경지에 달한 쇼스타코비치의 독자적인 기법을 담고 있는 교향곡 제9번이 연주된다. 쇼스타코비치는 교향곡 제9번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영혼에 대한 깊은 탐색을 경험했고 전쟁 기념 작품이나 정권에 대한 장황한 경의의 표시와는 거리가 먼, 소박한 '스케르초-심포니'를 탄생시켰다. 교향곡 제7번 이후 이른바 '전쟁 3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인 1945년 8월 완성되었으며 그해 11월 레닌그라드교향악단에 의해 초연되었는데 당시 '승리의 교향곡'이라 불리었다.

입장료 균일 2천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6, 3105

## 유인촌의 오페라 스토리

신설령 음악평론가

〈유인촌의 오페라 스토리〉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이다. 그런데 왜 ‘유인촌’이라는 이름을 앞에 달고 나왔을까? 그는 연기자인데 음악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오페라 해설을 하는가? 이러한 호기심이 필자를 음악회로 이끌었다. 공연장에 도착하니 음악회 표는 매진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많이 보였다. 여름방학에는 학생들이 음악회를 많이 찾는다. 과제를 위해 왔든, 음악회를 즐기러 왔든 그들에게 클래식음악의 청취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라본다.

스토리텔러로 무대에 선 유인촌 그는 확실하게 연기자임을 보여준다. 그는 동작 하나 하나에 관객들의 시선을 끌어당



기고 의미를 만들어 낸다. 그는 손짓으로 연주의 시작을 알리고, 성악가들과 함께 오페라에 등장하는 군중이 되기도 하며, 창가에서 줄리엣을 부르는 로미오가 되기도 한다. 또한 무대에서 연주하는 곡명을 스케치북에 큼지막하게 써서 들고 다니며 객석에게 센스 있게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그 역할마저도 연기자답다. 이날의 음악회에서 그는 단연 주목할 만한 출연자였다.

기획과 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하는 음악회였다. 12명의 출연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 내는 음악회였다. 한 명의 성악가가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는 동안 나머지 출연자들은 술잔을 들고 떠들썩하게 파티하는 모습도 만들어내고, 연주자 곁에서 춤을 추기도, 발을 구르면서 흥을 돋우기도 하고, ‘투우사의 노래’에서는 투우사를 들이 받는 소의 모습을 흉내 내는 조연 역할 등을 하면서 무대를 풍성하게 한다. 오페라의 장면에 맞는 무대 배경은 없지만 함께 연주하는 성악가들을 심분 활용함으로써 그 장면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연출의 힘일 터이다. 더 나아가 관중도 잠깐이지만 역할을 부여받기도 한다. ‘세빌리아의 이발사’ 아리아 장면에서 독창자는 객석의 청중을 불러내어 의자에 앉히고, 가운을 입히고, 가위로 헤어 커트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모든 관객이 즐거워하며 오페라 속에 녹아들게 만들었다. 특히 여성 6중창으로 꾸며진 롯시니의 ‘고양이 중창’은 가족 재킷 입은 좀 놀아본 듯한 언니 고양이들의 모습을 연기하며 노래함으로 마치 한편의 뮤지컬을 무대에 올린 듯하여 청중을 몰입하게 하였다.

또한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 무대를 폭넓게 사용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줄리엣이 2층 창가에서 노래하는 모습으로 청중의 시선을 붙잡고, 때로는 박수를 유도하여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게 함으로써 음악회 내내 지루한 틈을 주지 않았다.

〈유인촌의 오페라 스토리〉의 기획 의도는 ‘클래식이지만 진짜 진짜 재미있는 오페라 콘서트’라고 한다. 이날 청중들에게는 그 의도가 어느 정도 먹힌 듯하다. 오늘날 연주되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들은 수많은 성악가들이 불러왔고, 듣고 또 들었던 곡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기악곡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공부하여 음악적 기량을 최고로 끌어올린 연주자들도 많다. 그런데 그렇게 귀에 익숙한 곡들을 참신한 기획과 연출로 옷 입혀 새로운 상품으로 새로운 관객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문화기획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 음악회였다.

이날 음악회에서 막이 오르기 전 오페라 아리아 내용을 프로그램 노트를 읽어보고 이해하기를 권했지만 짧은 시간에 다 읽을 수는 없다. 스크린에 자막을 띄워주면 음악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텐데, 어려운 일일까?

## 문현경 개인전

### 한국적 색채를 가진 기억의 형태

2015. 8.2 ~ 8.15 해오름 갤러리

박미경 서양화가

문현경 작가의 4번째 개인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형 형태인 원과 삼각형, 사각형 등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흔히 볼 수 있는 주변 풍경들을 표현하였다. 그 풍경들은 유희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형태와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색채로서 유년 시절에 느껴 봄직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또한 인내의 시간과 노동을 필요로 하는 목판의 특성을 잘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깊이 있는 색감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있는 듯 없는 듯 묻혀 있는 색들은 다른 색들과 어우러져 전혀 다른 색으로 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작품에는 형태 뿐 아니라 색에서도 즐거움이 느껴진다. 형태에 따른 색들은 오방색(五方色)에 가깝다. 오행사상을 바탕으로 생겨난 오방색은 오행(五行)을 색으로 나눈 것으로 오행이 가지는 속성을 색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방과 오방색 사이에 있는 오간색은 오방과 오방색을 섞은 색이다. 오방색은 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의 5가지 색이며 오행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이다. 오방색은 다섯 방위도 나타낸다. 황은 중앙, 청은 동쪽, 백은 서쪽, 적은 남쪽, 흑은 북쪽을 나타낸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목(木): 동쪽, 봄, 청색, 화(火): 남쪽, 여름, 적색, 토(土): 사잇 방위, 환절기, 황색, 금(金): 서쪽, 가을, 백색, 수(水): 북쪽, 겨울, 흑색.

오방색 가운데 황은 가장 고귀한 색으로 임금의 옷에만 쓰였다. 적은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색으로 쓰였으며 흑은 인간의 지혜를 관장한다 여겼으며 백은 결백과 순결을 뜻한다. 전통 조각보나 단청 무늬, 한복, 백자 등 선조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에는 오방색이 쓰여 왔다. '우주와 자연, 사람이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했던 선조의 세계관'은 음양오행의 세계관으로,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고자 오방색으로 그 가치를 추구하였다

작가의 그림에는 오방색과 오간색을 세모와 네모, 동그라미 속에 적절히 사용하여 한국적 향수를 느끼게 해준다. 오방색은 원색에 가까우나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림들과 조화를 이룬다. 전통적인 색들의 어울림이 옛 향수를 자극하게 하고 목판 특유의 날카로움보다는 아이의 순수한 조형언어로 따뜻하면서도 유쾌한 즐거움을 준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바다, 벚꽃, 기다림을 통한 인내의 시간을 판화에 담고 싶었다"고 말한다. 계절의 변화와 자연으로부터 얻은 감성과 영원성을 가지는 대상에서 영감을 얻으며 자연 속에서 느끼는 시간과 감정, 기억의 형태들을 그림 속에 투영시킨다고 한다. 판화 작업을 할 때 계산할 수 없는 우연의 선과 색, 면과 면의 색감 사이에서 오는 우연의 결과들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 위드앙상블 창단연주회

일 시 | 9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시 1만원)  
 문 의 | 위드앙상블 010-4391-1106  
 010-2992-3960

...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유럽에서 유학하고 부산에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와 성악가들이 학문적 교류를 통해 상호친목과 클래식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위드앙상블 창단연주회.

위드앙상블은 앞으로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다양한 곡을 소개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클래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무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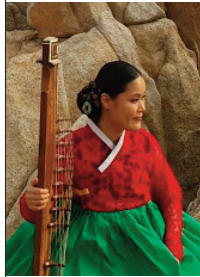
- 드보르작/슬라브무곡 작품 72 제2번 이원주/베를로레
- 레하르/뜨겁게 입맞추는 나의 입술 그리그/페르귄트 모음곡 제1번 작품 46 등
- 피아노/서주옥, 박정남, 조은주
- 소프라노/한인숙, 김삼희
- 테너/최광현 • 바리톤/윤풍원

## 김혜진 가야금 독주회

### 詩와 絃-興以詩立以禮成以樂

일 시 | 9월 2일 수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명수 010-3130-1353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 중인 김혜진 가야금 독주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유자 후보로 있는 김혜진은 그동안 독주회를 비롯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

무대, 호산 강태홍 탄생 120주년 기념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시에서 감흥받고 예를 알아 인격을 갖추고 음악으로 완성한다'는 '興以詩立以禮成以樂'을 부제로 한 이번 무대에서는 시인들의 감성이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는 시의 감흥을 가야금 선율로 들려준다.

### [프로그램]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돌놀이, 세월이 가면 · 향수(최경철 편곡), 여행(이지영 곡)

## 클래식기타 제레미 주브 & 바이올린 백현경 듀오 콘서트

일 시 | 9월 3일 목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



차세대 클래식 기타를 이끌 어갈 떠오르는 스타로 각광 받고 있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제레미 주브와 부산대학교와 스위스 바젤 국립음악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국립장원대학교 외래교수, 아이온예술공연 대표 겸 예술감독, 밀양시 음악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현경의 듀오무대.

13세의 어린 나이에 그르노블음악원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제레미 주브는 2002년 에티히(Tychy) 국제기타콩쿠르(폴란드)에서 최우수상을, 2003년 미국기타재단이 주최하는 권위있는 국제기타콩쿠르대회(GFA)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을의 서정을 느낄 수 있는 파가니니 곡을 솔로와 듀오 무대로 들려준다.

## 2015 제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Musical Scenery

일 시 | 9월 3일(목)~11일(금) 부산문화회관, 국립부산국악원, 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외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  
 516-8293~4, www.bmimf.co.kr

...



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첫 선을 보인 부산마루국제음악제 2015년 무대.

'Musical Scenery(음악에 녹아드는 부산의 풍경)'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Scenery(풍경)'이라는 주제로 음악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 4일 오후 7:30 대극장 메인콘서트 I

#### 개막연주 멕시코 할리스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5년 올해 창단 100주년을 맞는 할리스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무대로 마련되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연주회.

- 지휘/마르코 페리소토 • 협연/워니 송(피아노)

### 5일 오후 5:00 대극장 메인콘서트 II

#### 충북도립교향악단

폭넓은 레퍼토리와 탄탄한 연주력을 갖춘, 지휘자 양승돈이 이끄는 충북도립교향악단의 무대.

독일 뤼베크교향악단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카를로스 존슨과 현재 일본 나고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이자 나고야대학에서 후배를 양성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타케히토 하시모토가 협연한다.

### 7일 오후 7:30 대극장 메인콘서트 IV

#### 강릉시립교향악단

새로운 레퍼토리와 참신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강릉시립교향악단의 무대.

상임지휘자 류석원이 지휘하고 일본 고베 HYOGO PAC Orchestra 제1연주자, Japan Philharmonic Orchestra 객원 수석연주자로 있는 이탈리아 트럼페터 오타비아노 크리스토폴리가 협연한다.

### 8일 오후 7:30 대극장 메인콘서트 V

####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연주자들로 결성된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무대.

강릉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류석원이 지휘하고 일본 나고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악장인 클라리네티스트 로버트 보로스스와 나고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인 오보이스트 요스케 테라시마,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바수니스트 장정호,

미국 달라스 심포니, 프트 워트 심포니에서 활동중인 호른리스트 제럴드 우드로 결성된 BMIMF무관 4중주단이 협연한다.

### 10일 오후 7:30 대극장 메인콘서트 VI

#### 제주도립교향악단

전문성과 대중성을 기미한 다양한 무대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도립교향악단의 무대.

상임지휘자 정인혁이 지휘하고 디오니시스 루소스, 일리아스 삼스노브, 테로도로 케르테조스, 귀도 드 플라비스 등 4명의 색소포니스트로 구성된 색소폰 4중주단이 출연, 금관악기 특유의 화려한 연주를 들려준다.

### 11일 오후 7:30 대극장 메인콘서트 VII

#### 폐막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무대로 마련되는 2015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폐막연주회.

멕시코 주립 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을 얻고있는 마에스트로 엔리크 바티즈가 지휘하고 클라리네티스트 로버트 보로스와의 협연으로 화려했던 9일간 축제의 막을 내린다.

### [프로그램]

멘델스존/핑갈의 동굴' 서곡  
 모차르트/클라리넷협주곡 가장조 K.622  
 베토벤/교향곡 제6번 바장조 작품 68 '천원'

## 제11회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관현악단(DOMO)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5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DOMO 단장 고희환 010-5591-3395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재학생들과 동문들로 구성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관현악단(DOMO)의 11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05년 9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펼쳐온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관현악단은 그동안 10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동의대학교 한의학과 총동문회 연주회, 삼세한방병원 10주년 기념공연, 부산광역시 한의사협회 정기총회 초청연주회, 제1회 부산 한복데이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 [프로그램]

- 베토벤/교향곡 제2번
- 프란츠 크로머/클라리넷 협주곡 작품 36
- 영화 '여인의 향기' 중 '간발의 차'
- 존 윌리엄스/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II' OST
- 지휘/정흥기 • 협연/정인호(클라리넷, DOMO 6기)

## 제5회 황미리 플루트 독주회 세계명작 플루트 이야기

일 시 | 9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19세까지), 60세 이상 1만원  
 문 의 | 황성준 010-3556-7308



프랑스 잔 바이너 국립음악학교, 파리 스콜라칸토름 사범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프랑스 레오폴드 벨랑 국제콩쿠르에서 1위 입상한 플루티스트 황미리의 5번째 독주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 명작소설과 플루트 연주를 함께 콜라보레이션하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 아급 가데/탱고환상곡
- 루이 간/안단테와 스케르초
- 벤자민 고다르/세계의 소품모음곡
- 발터 기제킹/소나티네
- 벨라 바르톱/헝가리 농민가

## 제6회 참플룻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6일 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참플룻 010-4016-7477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러시아 Glinka 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미국 Bradley Garner Master Class 등에서 수학한 플루티스트 김혜정의 제자들로 결성된 참플룻의 6번째 정기연주회. 전문연주자와 프로를 지향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함께 꾸미는 무대로, 클래식부터 팝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아름다운 플루트의 선율을 감상할 수 있다. 소나타, 콘체르토 등 플루트의 테크닉과 연주자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 무대에서는 파퓰러, 세미클래식 등 우리 귀에 친숙하면서도 듣기 편한 곡들로 구성, 관객들에게 플루트의 매력을 선사한다.

- 플루트/이윤지, 정하윤, 이나영, 남궁해윤, 백애니
- 피아노/정소희



##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 제37회 정기연주회 John Leavitt-Festival Mass

일 시 | 9월 7일 월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한울림합창단 010-9044-7576, 010-6252-0019

지난 1987년 창단 이후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혼성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한 한울림합창단의 37번째 정기연주회.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상임지휘자 김창돈이 지휘하고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앙상블 Continto 리더, 포르투나 앙상블 멤버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Mi Ka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의 현대작곡가 존 레빗의 축제미사를 비롯해 국내외 가곡 및 성가, 민요 등을 들려준다.



## 배학수 클래식기타 연주회

일 시 | 9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배학수 246-2780, 010-3585-3780



한국 클래식기타계의 한 획을 그은 클래식기타의 대부 고암 배영식선생의 장남으로, 1973년 브라질 상파울루 부에노음악원에서 음악수업을 받고 귀국, 클래식기타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클래식기타리스트 배학수 독주회.

귀국 후 부산시민회관 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연주활동과 수많은 문화생을 배출해온 배학수는 이번 무대에서 그가 즐겨 연주하는 주옥같은 작품들과 선친인 배영식 선생이 작곡한 '아리랑'을 주제로 한 Korea Fantasy'를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기타 가족의 대를 이어 활동하고 있는 아들 배서완과 후배, 문화생들의 찬조연주가 함께 펼쳐진다.

### [프로그램]

- 빌라 로보스/프렐류드 제1번
- 그라나도스/스페인무곡 제5번
- 알베니스/전설 등

## 팝페라 듀엣 '라 루체' 제2회 정기공연 Mi Manchi(그대가 그림다)

일 시 | 9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라 루체 010-4752-0523



맑고 힘있는 음색의 팝페라 테너 최승과 깨끗한 음색의 소프라노 이찬미로 구성된 부부 팝페라 듀엣 '라 루체'의 두 번째 정기공연.

이탈리아어로 '빛'을 뜻하는 '라 루체'는 클래식음악을 바탕으로 한 크로스오버 팝페라 듀오로, 지난 2012년 결성된 후 정기공연뿐 아니라 찾아가는 음악회, 거리음악회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도 펼쳐오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부부가 가질 수 있는 한상적인 앙상블을 선사해온 '라 루체'는 이번 무대에서 클래식 발성을 기초로 클래식에서부터 칸초네, 라틴팝, 보사노바, 맘보, 영화 OST 속의 재즈, 팝 등 그들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연주곡을 콘트라베이스, 드럼, 신디사이저로 구성된 재즈 트리오의 연주로 들려준다.

- 콘트라베이스/심규환 • 드럼/허태성
- 신디사이저/김혜인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2015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일 시 | 9월 9일(수)~12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

\*\*\*



부산문화회관이 지난해 부산시민들의 클래식 감성을 해소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마련한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2015년 무대.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지휘자 금난새를 음악감독으로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내악팀들이 참가하는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은 아카데미한 트리오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체코의 트리오 마티누(Trio Martinu)와 세계 유수의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슬로바키아의 무차 콰르텟(Mucha Quartet), 글라스 하프라는 새로운 악기 연주에 도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남매 듀오인 폴란드의 글라스 듀오(Glass Duo), 뉴월드 필하모닉(구, 유라시아 필하모닉)의 수석단원들로 구성된 카메라타 S(Camerata S), 다양한 구성과 새로운 시도로 관객 안(in)으로 들어가자 지난해 창단된 앙상블 인(Ensemble IN), 바로크에서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는 움 챔버 오케스트라(UM Chamber Orchestra), 그리고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구성된 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Busan Phil Ensemble)이 출연, 나흘 동안 시민들의 눈과 귀가 즐거운 아름다운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9일 오후 7:30** 트리오 마티누, 무차 콰르텟, 글라스 듀오, 카메라타 S



990년 창단 후 네덜란드 헤를렌의 국제 챔버 앙상블 최우수상(1995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는 체코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올해의 앙상블상(1995년)을 수상하고 Libor Pešek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Jean-Claude Casadesu가 지휘하는 프라하 심포니와도 협연하는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트리오 마티누와 2010년 프라하 Bohuslav Martinů 국제콩쿠르 2등상, 2012년 Gianni Bergamo Clas-

sic Music Award 3등상, 2013년 비엔나 Josef Windisch Prize, 2014년 안토닌 드보르작 국제 챔버 뮤직 컴페디션 우승 등 세계 유수의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무차 콰르텟, '천사의 악기'라 불리는 글라스 하프의 아름다운 선율로 전 세계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 글라스 듀오 등 해외 앙상블팀과 세계 유수의 국제콩쿠르에 입상한 바이올리니스트 로드리고 푸스카스와 함께하는 카메라타 S의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현악4중주 제8번 단단조 작품 110  
드보르작/피아노트리오 제4번 마단조 '돛키'  
바흐/토카타와 푸가 리단조  
모차르트/Rando Alla Turca  
차이코프스키/사탕요정의 춤  
비발디/사계 중 '겨울'

10일 오후 7:30 앙상블 IN



2014년 창단 이후 매달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회 초청공연, 하우스 콘서트 등 다양한 구성과 새로운 시도로 관객과 소통해온 앙상블 IN의 무대.

[프로그램]

하이든/현악4중주 작품 64 '종달새'  
피아졸라/오블리비언  
파스쿨리/벌  
드르르작/현악4중주 사장조 작품 77

11일 오후 7:30 움 챔버오케스트라

바로크에서부터 현 시대의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구, 연주하기 위해 부산 출신 연주자들로 결성된 움 챔버오케스트라는 지난해 창단 후 청중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획으로 다른 장르와의 결합을 시도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색소포니스트 김태현, 피아니스트 윤신원이 함께한다.

[프로그램]

크레스톤/색소폰을 위한 소나타 작품 19  
이베르/Concertino da camera  
J. 데메르스만/환타지  
몬티/차르다스  
수크/세레나데 내림마장조 작품 6

12일 오후 3:00 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

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의 다채로운 챔버뮤직으로 화려한 막을 내리는 2015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마지막 무대.

[프로그램]

멘델스존/현악8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20  
모차르트/오보에4중주 바장조 K. 370  
베버/클라리넷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34  
멘델스존/현악8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20

비엔그림 · 대선주자와 함께하는

## 제8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일 시 |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문 의 | KNN 1800-2575

\*\*\*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위해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열어온 BN그림 · 대선주자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K클래식의 대표 아티스트로 자리잡은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출연, 문화로 하나 되는 감동의 무대를 열어준다.

2007년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5위, 2008년 프랑스 롱-티보국제콩쿠르 1위, 2012년 퀴 엘리자베스국제콩쿠르 3위 입상으로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한 신지아는 국내외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리사이틀과 앙상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발레모음곡 '백조의 호수' 중 '정경'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R. 슈트라우스/오페라 '정미의 기사' 모음곡

선공연단 8번째 정기공연

## -시니어 공연단

일 시 | 9월 13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선공연단 644-6627

\*\*\*



지난 2006년 국내 최초의 오리지널 라틴아메리카 댄스 전문 공연단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댄스의 매력을 선사해온 선공연단의 8번째 정기공연.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에서 활약하는 수준높은 댄스들로 구성된 선공연단은 전

통의 볼룸댄스에 현대적인 감각과 세련미를 더한 환상적인 무대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시니어 공연단의 열정적인 무대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차차, 룸바, 삼바, 자이브, 파소다블레, 맘보, 살사, 탱고, 왈츠, 퀵스텝, 스윙 등 심장을 두드리는 리듬과 멜로디, 눈과 귀를 사로잡는 라이메리카 댄스의 향연이 펼쳐진다.

• 특별출연/남중현 & 임화정



## 윤경선 가야금 독주회 공존의 시간

일 시 | 9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신정현 010-3273-818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단원으로 활동 중인 가야금  
주자 윤경선 수석단원의 가  
야금 독주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윤경  
선은 제6회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 일반부 금상, 제  
21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  
회 동상을 수상하고 현재 부  
산가야금연주단 단원, 산·바다·해 동인, 창원국악  
관현악단 부악장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별과 詩人의 대화를 암시하고 있는  
'별(星)-별과 시(詩)'를 시작으로 한국의 전통 산조  
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한 '혼불-젖은 옷소  
매', 가야금의 모든 기교와 소리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등 다양한 곡을 통해 가  
야금의 아름다운 음색을 감상할 수 있다.

• 장단/김청만

## 2015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코리아 슈퍼 투어' 부산공연

일 시 |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13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문 의 | 혜화JHP 02-2681-8698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화  
려한 플레잉, 금세기 최고  
의 라이브 여제'라는 호평  
과 함께 클래식 경계를  
넘나들며 청중의 심혼을 울  
리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  
혜의 첫 번째 전국투어 부산  
공연.

14세에 Mainz 시립 챔버  
오케스트라와의 유럽순회  
연주로 세계무대에 정식 데뷔한 박지혜는 바덴바덴  
필하모니, LA심포니,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2011년부터  
한국 활동을 시작하며 국내외 무대를 총횡무진하  
고 있다.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과 미국에서 음악수업을 받았  
지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박  
지혜는 이번 무대에서 '코리아 환타지'라는 테마로  
추억과 꿈(과거), 기쁨과 희망(미래)이 어우러진 교  
차점으로서의 현재(콘서트)를 음악으로 들려준다.

##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훈수 10주년 기념 제자음악회 가을이 오는 소리

일 시 |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M&M CANTO 010-4434-6605

부부성악가인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훈수의 제  
자들이 펼치는 열정 넘치는 무대.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성악 전공자와  
일반 아마추어 연주자로 나누어 그동안 쌓은 숨은  
실력을 선보인다.

- 지도교수/신정순, 고훈수
- 소프라노/임미나, 배현숙, 박유미, 천경란, 서세정, 이민숙
- 테너/김병균, 한승헌
- 바리톤/김홍섭, 서정화
- 피아노/김아영, 권선경



##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사랑 나눔콘서트

일 시 | 9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 의 | 한국전력 부산울산지역본부 801-2322



한국전력이 사회공헌 활동  
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자 지난 2005년부터 펼쳐  
오고 있는 한국전력과 함께  
하는 희망·사랑 나눔콘서  
트.

올해는 '클래식 음악의 대  
중화'에 앞장서며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국내 정상급 팍스오케스트라인 (사)  
서울팍스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고혜욱, 테너 김철  
호, 가수 디아가 출연해 대중의 귀에 익숙한 클래식  
에서부터 팝송, 재즈 등을 팝·클래식으로 해석, 누  
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따뜻한  
문화나눔을 펼친다.

- 지휘/하성호(상임지휘자)
- 편곡/서울팍스오케스트라
- 협연/소프라노 고혜욱, 테너 김철호, 가수 디아

## 김윤희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9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예술기획 윤 010-9025-2012



연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  
하고 동대학원 조교로 재학  
중 도미, 미국 신시네티움  
대와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장학생  
으로 졸업하고 현재 목관6  
중주 앙상블 '부산우드윈드  
소사이어티' 대표로 있는 플  
루티스트 김윤희 독주회.

콩쿠르 우승으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낸 김윤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신  
포니에타,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통해 솔  
리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혔으며 미국의 다수 콩쿠르  
에서 입상, 뉴욕 카네기홀 Weill Recital Hall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귀국 후 서울과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윤희는 현재 부산예  
중·예고, 부산교육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외래교수  
로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김선영
- 플루트/박찬엽
- 드럼/하경륜
- 퍼쿠션/이셀라

## 부산시립합창단 제158회 정기연주회 지휘자 박신화 초청 '합창으로 듣는 가을 소나타'

일 시 | 9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2, 3108



한국합창총연합회 이사장  
이자 현재 안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로 있는 박신화  
초청으로 마련되는 부산시  
립합창단 제158회 정기연  
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카운터테  
너 정민호, 오르가니스트  
정경민, 하프스트 김명림,  
퍼커셔니스트 박용갑, 박병  
진, 플루티스트 장예지가 출연, 흥성4부와의 하프, 타  
악기가 어우러지는 레너드 번스타인의 '치체스터 시  
편'을 비롯 세계민요, 한국가곡 및 가요 등 다양한  
합창음악으로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부산시립합창단과 처음 호흡을 맞추는 박신화는 현  
재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지휘자, 이화챔버콰이  
어 지휘자, 이화여대 교수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Program  
Guide >>>

###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가을 소나타

일 시 | 9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격렬하면서도 서정적인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피아니스트 박정희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미국 보스턴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석사학위와 Graduate Diploma, 론지 음악대학에서 Artist Diploma, 보스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정희는 그동안 국내 최고의 콩쿠르를 석권하고 다수 국제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Sento Chamber Society 멤버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정희는 동아대학교 강의를 담당 전임교수, 부산대학교 강사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제5번 사장조 K. 283  
 바버/소나타 작품 26  
 브람스/소나타 제3번 작품 5

### 홍병희 클라리넷 독주회

일 시 | 9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홍병희 010-3849-0863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수석, CORE CLARINET 리더로 활동 중인 클라리네티스트 홍병희 독주회. 부산클라리넷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홍병희는 그동안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를 비롯 MBC목요음악회, 부산문화회관 토요상설무대, 금정수요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서었다.

**[프로그램]**

슈만/로망스 작품 94  
 드비엔느/Deuxieme Sonate 카발리니/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세레나데  
 F. Kroepsch/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에 의한 환상곡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공연 3인 3색 음악회

일 시 | 9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A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3, 3105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작국악의 활성화와 젊은 지휘자 인재 양성을 위한 등용문으로 마련한 특별한 무대 '3인 3색 음악회'.

세종국악심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자, 서울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지휘자, 상상국악챔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유용성의 첫 무대에 이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수석,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동인, 창원국악관현악단 지휘자인 김경수가, 마지막 무대에서는 한국과 미국, 유럽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황미나가 지역적 정서가 묻어나는 레퍼토리와 대중성을 기미한 3인 3색의 특별한 무대를 펼친다.

- 객원지휘/유용성, 김경수, 황미나
- 협연/박성희(노래)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 제23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 페스티벌

일 시 | 9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19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7, 3108



전국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을 노래하는 특별한 합창축제 '제23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 페스티벌'.

지난 1995년(4회), 2006년(14회)에 이어 세번째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 페스티벌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부산 지역 區 소년소녀합창단 4개팀이 특별출연해 꿈과 사랑, 희망을 담은 아름다운 합창음악을 선사한다.

**18일 출연팀**

부산진구라온소년소녀합창단(지휘/허종영, 반주/최여진)[특별출연]  
 부산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엄현섭, 반주/이

은혜)[특별출연]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권유진, 반주/김혜린, 이수정)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박훈, 반주/박혜진)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정혜, 반주/조인나)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윤영모, 반주/김범)  
 김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강희원, 반주/최현정)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남희, 반주/이미경)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박위수, 반주/양미파)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단장/원학연, 지휘/장지형)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전상철, 반주/이영옥)  
 연합합창단(지휘/전상철, 반주/이영옥)

**19일 출연팀**

부산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철수, 반주/조미영)[특별출연]  
 정관소년소녀합창단(지휘/차윤희, 반주/최지선)[특별출연]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최현욱, 반주/윤유리)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조덕현, 반주/변선영, 문소영)  
 의정부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종호, 반주/권지선)  
 김해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건훈, 반주/유승이)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장인순, 반주/엄진경)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김성중, 반주/조공란)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마원희, 반주/박은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전상철, 반주/이영옥)  
 연합합창단(지휘/전상철, 반주/이영옥)

### BS오페스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19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BS오페스앙상블 010-3592-5697



부산과 서울, 경남지역 등에서 각 분야의 솔리스트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연주자들로 결성된 BS오페스앙상블의 무대.

지난 2007년 창단된 후 피아노 듀오, 트리오, 현악 4중주, 피아노 5중주, 현악 5중주, 챔버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편성과 바로크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실내악 음악의 저변확대와 음악적 성취를 추구해온 BS오페스앙상블은 그동안 찾아가는 음악회, 해설이 있는 음악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초청 음악회, 자선음악회 등 다양한 실내악 무대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 연주/피아니스트 최은주, 김은희, 진승민,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여주현, 조무중, 비올리스트 이성호, 첼리스트 현리사, 클라리네티스트 여인호, 바리톤 시영민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 연주회 '어울림'

일 시 | 9월 20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청소년 50% 할인)  
 문 의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010-8918-1535

...  
 지난 1996년 창단된 후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은 법인예술전문교향악단인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교육·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성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평소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편성의 심포니와 관현악곡을 중심으로 웅장한 하모니를 들려준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차이코프스키/이탈리아 기상곡  
 모차르트/교향곡 제40번 1악장  
 차이코프스키/백조의 호수' 모음곡 중 정경, 왈츠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4번 1악장, 4악장  
 최성환/아리랑 등  
 • 지휘/김용문, 윤상운, 김정민

## 부산코러스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정현호 010-2551-7542

...  
 지난 1999년 합창음악을 사랑하는 전문 음악인들과 합창 애호가들이 모여 결성된 순수 민간 혼성합창단인 부산코러스합창단 정기연주회. 부산코러스합창단은 부산지역 민간 합창단 중 최대 규모의 합창단으로, 그동안 11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 세계합창올림픽, 부산합창제, 열린 음악축제, 부산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국내외 가곡 및 민요, 뮤지컬, 팝송, 가요 등 다양한 곡을 합창, 중창으로 들려준다.

- 지휘/한성용 • 반주/최지선
- 트레이너 겸 독창자/공경민 • 단장/정현호



## 글로벌라이어 제2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글로벌라이어 010-5513-0314

...  
 1982년 6월 창단 이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글로벌라이어 제24회 정기연주회. 사회의 취약지역 및 소외된 지역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글로벌라이어는 2006년부터 정기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청소년 범죄예방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부산 라이트 하우스 아동 돕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돕기 등에 기탁하면서 음악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7080 가요와 디즈니 영화노래 모음, 추억의 팝송 등 관객들에게 친숙한 대중적인 합창곡과 재즈양상블의 특별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연주회의 수익금 역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액 기탁된다.



## 소프라노 윤지영 독창회

일 시 | 9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윤지영 010-5165-3744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밀라노 국제아카데미를 졸업한 소프라노 윤지영 독창회.

이태리 국제콩쿠르 'Giovani Talenti' 1위, 'Porana Lirica' 1위, 'Luisi Stramesi' 1위, 'Gian Battista Viotti' 특별상, 'Lignano Sabbiadoro' 3위에 입상한 바 있는 윤지영은 그동안 오페라 '투란도트', '박쥐', '아이다', '카르멘', '라보엠',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 '돈 조반니', '산타클로스는 재 판중', '다이도와 에네아스' 등 주역으로 무대에 서왔다. 윤지영은 현재 현 부산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로 있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Ave verum  
 로시니/아누스데이  
 토스티/기도  
 신상우/너는 내 것이라  
 주영광/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등 수곡

## 소프라노 권순유 독창회

일 시 | 9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권순유 010-3559-8291

...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하고 진해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을 거쳐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소프라노 권순유 독창회.

합창, 독창뿐 아니라 아카펠라에도 관심이 많아 아카펠라 그룹 Azit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권순유는 그동안 헨델 '메시아', 하이든 '천지창조',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 생상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등 오라토리오 솔리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목소리의 빛깔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 뮤지컬이나 악극 무대에도 서오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환호하라 기뻐하라 행복한 영혼이여, 따스한 햇살이 빛나고, 그대 처녀들의 왕  
 이원주/연  
 정환호/꽃피는 날  
 뒤파르크/슬픈 노래 등 수곡  
 • 클래식기타/고종진 • 반주/박민경



## 최지은 피아노 독주회 Romantic Story

일 시 | 9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최지은 010-2333-2544

...  
 '섬세한 감정표현과 휘몰아치는 열정으로 청중을 집중시키는 연주자'로 호평받는 피아니스트 최지은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미국 피바디 음대에서 석사학위와 전문연주자과정 디플롬, 텍사스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지은은 2009년 귀국 후 예술의전당과 부산문화회관에서의 귀국독주회를 비롯해 동영국제음악제, 예술의전당 비전-C 작곡 발표회, 유림아트홀 '눈의여왕' 갈라콘서트, 금정문화회관 수요일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최지은은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22  
 카푸스틴/변주곡 작품 49  
 쇼팽/4개의 발라드



## 테너 오동주의 15th Story Concert 사랑과 그리움에 대하여...

일 시 | 9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오동주 010-4556-5058



무겁고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에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테너 오동주의 Story Concert 15번째 무대.

경성대학교와 이탈리아 루이지 단눈치오 국립음악원, 이탈리아 페스카라 국립아카데미 오페라 연기과를 졸업한 오동주는 목련합

창단 지휘자,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B-STAR) 지휘자, 남성성악양상블 4+1, 이태리음악연구회원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이탈리아 가곡과 스페인 로만짜, 한국가곡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소프라노 이지은,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반주/이승윤)
- 반주/양상블 조이(피아노 유영욱, 플루트 황미리, 첼로 현리사)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1회 정기연주회 Peace

일 시 | 9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6, 3105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김범수가 지휘하고 경북대학교 재학 시절 그의 스승이었던 윤수영 교수가 바이올린 협연을 맡아 특별한 무대를 펼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1회 정기연주회 'Peace'. 이번 무대에서는 '말리의 아다지오'라는 애칭으로 더욱 유명한 말리 교향곡 제5번 4악장 '아다지에도'와 독자적인 멜로디의 전개로 낭만주의 전통의 극치라고 평가받는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사단조 작품 26', 원숙의 경지에 달한 쇼스타코비치의 독자적인 기법을 담고있는 교향곡 제9번이 연주된다. 협연자 윤수영은 현재 카메라타 서울 앙상블의 음악감독 겸 리더를 맡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지휘/김범수(수석지휘자)
- 협연/윤수영(바이올린, 경북대학교 교수)

## 키즈샘&프렌즈 가족뮤지컬 피터팬

일 시 | 9월 24일 목요일 오전 10:10,  
11:1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키즈샘&프렌즈 02-6203-6593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을...'이라는 모토로 지난 2005년 창단된 어린이 전문극단 키즈샘 가족뮤지컬 '피터팬'.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ASSITEJ) 회원극단으로 매년 명작 동화를 무대화 한 작품이나 창작극으로 어린이 관객들과 만나온 키즈샘은 이번 무대에서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J. M. 배리의 소설을 원작으로 그동안 영화, 연극, 뮤지컬로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피터팬'을 선보인다.

환상의 섬 네버랜드를 배경으로 하늘을 나는 영원한 소년 피터팬과 요정 텡가벨의 신나는 모험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최첨단 레이저쇼와 화려한 네온 불빛들이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3회 정기연주회 전람회의 그림

일 시 | 9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율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4, 3106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중국 중앙민족악단 비파수석 자오 총(Zhao Cong),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 홍은지의 협연으로 펼쳐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3회 정기연주회 '전람회의 그림'.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012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최연소 바이올린 수석으로 화제가 된 바이올리니스트 홍은지가 들려주는 중국의 작곡가 첸 강(Chen Gang, 1935~)과 허 잔하오(He Zhanhao, 1933~)의 바이올린 협주곡 '나비연인(The Butterfly Lovers)'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비파의 매력을 전한 비파연주자 자오 총의 비파협주곡 '플라잉 실크로드', 러시아적 색채가 강한 무스르그 스키의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을 들려준다.

맑고 투명한 비파의 선율을 들려줄 비파연주자 자오 총은 중국 청년 전공비파대회에서 1등을 수상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오고 있다.

- 지휘/리 신차오(수석지휘자)
- 협연/홍은지(바이올린), 자오 총(비파)

## 남유미&이수민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9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세나 02-552-2505

### 이수민 남유미 듀오



미국 뉴욕대학교 동문인 첼리스트 남유미와 피아니스트 이수민이 함께하는 '베토펬 소나타 전곡' 듀오 리사이틀.

남유미는 연세대학교 기악과와 미국 뉴욕대학교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트레비앙 트리오 단원, 세종꿈니무오케스트라 수석강사로,

이수민은 한양대학교 피아노과와 미국 뉴욕대학교 석사과정, 아이오와대학교, 한양대학교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강사로 있다.

### [프로그램]

베토벤/첼로 소나타 제4번 다장조 작품 102 제1번  
베토벤/첼로 소나타 제5번 라장조 작품 102 제2번  
베토벤/첼로 소나타 제3번 가장조 작품 69  
베토벤/첼로 소나타 제2번 사단조 작품 5 제2번  
베토벤/첼로 소나타 제1번 가장조 작품 5 제1번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 9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010-8918-1535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은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

지난 1996년 학연과 지연을 초월한 유능하고 열정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46차례 정기연주회와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대형 오페라 연주, 도시락보내기, 자선음악회, 공기관 위탁 초청연주, 시민을 위한 순회 야외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 축하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 [프로그램]

- 로시니/윌리엄 텔'서곡
- 최영섭/그리온 금강산
- 김동조/농촌의 아침
- 박범훈/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 시벨리우스/핀란드야
- 오펜바흐/자클린의 눈물 등
- 지휘/윤상운(동덕대학교 교수)
- 협연/이세미(해금), 남산놀이마당

## 소프라노 허미경 독창회

일 시 | 9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S석 5만원, A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예인예술기획 02-586-0945,  
 아지무소오페라단 070-7522-4649



서울대학교 성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 후 도미, 템플 대 음대 석사, 이스트만 음대 박사 및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2003년 신설된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으로 특채된 후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소프라노 허미경 독창회.

미국 유학시절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학구적이면서도 뛰어난 차세대 유망주라는 찬사를 받기도 한 허미경은 귀국 후 국립오페라단 주역 선발 공개 오디션을 통해 국내 무대에 데뷔한 후 오페라 주역, 오라토리오 독창자, 국내외 오케스트라 협연자로 다양한 활약을 펼쳐왔으며 그동안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17차례 독창회를 갖기도 했다. 허미경은 현재 서울명성교회 독창자, 김해시 다문화합창단 '천사코러스' 음악감독, 우리가족연구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피아노/강지현
- 플루트/오신정 • 테너 / 김현욱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28회 부산합창제

일 시 | 10월 1일-2일 목-금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2, 3108

합창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펼치는 제28회 부산합창제. 부산 합창 인구의 저변 확대와 수준 높은 문화 생활 공유를 위해 198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부산합창제는 부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한 총 29개팀이 참가해 합창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전해준다.

### 1일 (목) 오후 7:00

- 신라시니어스콰이어(지휘/이은정)
- 부산여성합창단(지휘/김성복)
- 아모르합창단(지휘/박정희)
- 거제무지개합창단(지휘/최인숙)
- 부산콘서트콰이어(지휘/최형태)
- 사하만들레합창단(지휘/이외균)
- 예그리나합창단(지휘/강종철)
- 해운대소리합창단(지휘/김진영)
- 벨라보체합창단(지휘/조현수)
- 글로리콰이어(지휘/이정철)
- 부산광역시공무원합창단(지휘/오동주)

- 부산시의사회합창단(지휘/양재원)
- 부산원음합창단(지휘/이은정)
- 부산시립합창단(여성)(지휘/전상철)
- 연합합창(지휘/전상철)

### 2일 (금) 오후 7:00

- 중구시니어코러스(지휘/이은정)
- CBS여성성가단(지휘/이외균)
- 어울림청춘합창단(지휘/박지민)
- 남부산농협합창단(지휘/강학운)
- 부산다아울림합창단(지휘/이일형)
- 센텀합창단(지휘/이철성)
- 갈멜합창단(지휘/구영립)
- 부산예중어머니합창단(지휘/채범석)
- 현대나르시어합창단(지휘/이경선)
- 예그리나합창단(지휘/손욱)
- 부산하모니합창단(지휘/김태우)
- 경남여고수정합창단(지휘/조익래)
- 우담바라합창단(지휘/정성민)
- 뮤즈콘서트콰이어(지휘/김태호)
- 금성하모니(지휘/손욱)
- 부산시립합창단(지휘/전상철)
- 연합합창(지휘/전상철)

##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26일 공연없음)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 9월 5일 부산시립교향악단 레이디스 필 앙상블 '앙상블의 초대'



2006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여성단원으로 결성된 후 그동안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실내악 특유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는 레이디스 필 앙상블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인 하피스트 김영립, 플루티스트 이화영이 아름다운 앙상블의 세계로 초대한다.

### [프로그램]

- 도니제티/소나타
- 모차르트/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2악장
- 김한기(편곡)/컨츄리 댄스
- 피아졸라/리베르 탱고
- 차이코프스키/세레나데 중 '왈츠'
- 쇼스타코비치/재즈모음곡 제2번 중 '왈츠' 등

### 9월 12일 창작국악단 젊은풍류

지난 2008년 창단된 부산의 대표적인 젊은 민간국악단체인 창작국악단 '젊은풍류'는 창단 후 매년 다양하고 참신한 국악무대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 [프로그램]

- 타령환상(거문고/김현경, 가야금/이은은, 양금/최경철, 대금/이윤화)
- 설중동백(거문고/김현경)
- 현을 위한 호롱곡(거문고/김현경, 가야금/이은은, 북한양금/최경철)
- 옥류금 소품(옥류금/최경철)
- 현과 바람(거문고/김현경, 옥류금/최경철)
- 국악가요 '가시리'(노래/김다솜, 거문고/김현경, 가야금/이은은, 옥류금/최경철, 대금/이윤화) 등

### 9월 19일 부산시립무용단



### [프로그램]

- 평무(한영숙류)(출연/이현주)
- 동래학춤(출연/황동하)
- 사랑가(출연/장영진, 박미나)
- 원향지무(출연/이현정)
- 경고춤(출연/안주희, 김주연, 김미란)
- 진도북춤(출연/김윤호, 이다정, 박세준)
- 장고춤(돌림장고)(출연/김진영, 오수연, 김경미)
- 예술감독/홍경희
- 훈련지도/서정숙

Music 음악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29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시장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1

1일 원로예술인 초청공연 '영송당 조순자의 노래'



국립부산국악원이 전통예술 계승과 국악저변 확대를 위해 매주 화요일 마련해온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월 첫 주는 공연과 대담으로 진행되는 '원로예술인 초청공연' 무대로, 9월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예능보유자 영송당 조순

자 선생의 무대가 펼쳐진다.

8일 박종환의 바람결 風流

중요무형문화재 제82-가호 동해안 별신굿 이수자,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장구 보유

자 후보로 현재 풍류전통예술원 대표로 있는 박종환의 신명넘치는 무대.

15일 이은혜의 육잡가 발표회 '얽은소리'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외래교수로 있는 이은혜의 육잡가 발표회.

이은혜는 제6회 경서도 소리경연대회 대상, 제10회 경기국악제 민요부문 대상, 제27회 온나라 전국 국악경연대회 민요부문 은상, 제1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경연대회 민요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2일 김민상, 최창균의 사물소리

사물소리 동인, 부산예술단 예술감독,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악사 이수자,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전수자로 있는 김민상과 사물소리 동인, 한얼예술단 대표, 부산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강사로 있는 최창균이 펼치는 신명넘치는 사물 한마당.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 창작오페라  
**해운대 - 불멸의 사랑**

일 시 | 9월 3일-4일 목-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5:00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인 해운대구가 기획에서부터 제작까지 맡아 화제가 되었던 창작오페라 '해운대 - 불멸의 사랑'.

장산자락에 위치한 장산국 설화를 바탕으로, 신라의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동화의 위기에 처한 장산

국 마지막 여왕 고아진과 장산국 장군 최윤후와의 불멸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해운대-불멸의 사랑'은 소프라노 김유섬, 바리톤 박대용, 테너 김지호 등 국내 최정상급 오페라 가수들이 출연,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 총 음악감독, 지휘/백진현
- 대본, 연출/김지용 • 작, 편곡/백현주
- 출연/김유섬, 김이름, 김경, 김지호, 박대용, 안세범, 장은영, 손혜은, 박상진, 김정대 외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2일 김지원 바이올린 독주회



연세대학교 재학 중 도독, 라이프치히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윈스터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사)탐프양상블 멤버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원 독주회.

김지원은 특히 20세기 초반의 현대곡에서부터 전자

음악을 아우르는 폭넓은 현대음악을 소개해오고 있다.

• 피아노/이경은

9일 러시아의 향수

모스크바 국립차이코프스키음악원을 졸업하고 싱가포르 난양음악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보리스 크랄체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중앙음악학교와 모스크바 국립차이코프스키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부산내셔널오케스트

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영주, 부산대학교와 독일 쾰른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부산나눔플루트소사이어티 멤버로 있는 플루티스트 성기엽이 함께하는 러시아음악의 향연.

16일 알마트리오 네 번째 이야기 'Shall We Dance'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중 도미, 뉴잉글랜드음악원과 클리브랜드음악원, 일리노이대에서 석박사과정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주영, 한양대학교와 미국 서일리노이주립대, 일리노이대에서 석, 박사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윤민영, 이화여자대학교와 미국 인디애나음대 석사 및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노스텍사스대 박사과정에 있는 첼리스트 김나래로 구성된 알마트리오의 무대.

23일 부산반주연구회 제6회 정기연주회 '오페리아 놀자'

지난 2010년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반주전문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부산반주연구회의 6번째 정기연주회.

실내악, 가곡,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에서 꼭 필요한 반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음악발전을 위해 창단된 부산반주연구회는 이번 무대에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카르멘', '세비야의 이발사'에 등장하는 서곡 및 유명 아리아를 들려준다.

- 출연/안선애, 김은경, 이화영선, 공소현, 김성희(a), 김미연, 김성희(b), 김경미, 박필은, 김아영, 안준희, 김주리, 김선희
- 게스트/구민영(소프라노), 성미진(메조소프라노), 홍지형(테너), 윤오건(바리톤), 김정대(베이스), 권영기(해설)

30일 피아니스트 Wen-chien Tong, 박은정 'Reminiscence of America'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대만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Wen-chien Tang과 정교한 테크닉과 아름다운 톤 컬러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은정이 함께하는 피아노 듀오 무대.

프로그램

- 타우젠드/4개의 환타지
- 거쉰/쿠바 서곡
- 피아졸라/탱고의 역사
- 존 코릴리아노/가제보 댄스 등

## 피아니스트 조미지 귀국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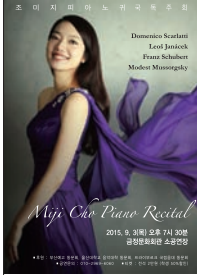
일 시 | 9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조미지 010-2969-6060

...



생동감 있는 터치와 섬세한 표현력의 소유자 피아니스트 조미지 귀국독주회.

울산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재학 중 도독,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석사과정과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조미지는 유럽 전국 연주 후원단체 'YEHUDI MENUHIN' Live Music Now stiftung에 발탁되어 소속회원으로 연주활동을 펼쳤으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라이징 스타 페스티벌 오디션에 발탁되어 'Sinfonieorchester Torun'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라이징 스타 실내악의 밤에서 연주해 솔리스트로서는 물론 앙상블 연주자로서의 기량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  
스카를라티/소나타 라장조 K.443  
아나체/In the Mists  
슈베르트/3개의 소품 D.946 등

##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 한국, 베트남 수교 기념 국제교류음악회

일 시 | 9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뉴프라이미 오케스트라 550-6611, 010-6293-3983

...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는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의 10주년 기념음악회 '한국, 베트남 수교 기념 국제교류음악회'.

2006년 창단된 후 젊은 오케스트라다운 패기와 열정, 힘이 넘치는 웅장하고 화려한 사운드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프라이미 오케스트라는 현재 동래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트남 국립음악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동민칭(Dong Min Chin)과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양욱진, ltrio, lpb 단원으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정성훈이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트 작품 56'으로 멋진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 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일 시 | 9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완벽한 기교와 대단한 열정을 가진 환상적인 첼리스트라는 호평을 받으며 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 방송인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동아대학교 이명진교수의 첼로 리사이틀.

2009년부터 시작한 2B+S 시리즈(베토벤, 브람스, 슈만의 곡들로 함께 호흡을 맞춰온 피아니스트 올리버 케른과 멘델스존과 쇼팽의 낭만적인 소나타로 초기의 정취 속으로 첼로여행을 떠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 MBC 라디오 'FM 가정음악실'을 진행한 바 있는 이명진과 올리버 케른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멘델스존/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작품 45  
쇼팽/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65

##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 해설과 함께하는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전곡 연주회

일 시 | 9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깊이있는 음악성과 탁월한 음색으로 심도있는 음악을 선사하는 테너 조창후의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전곡 무대로 마련되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에센국립음대 석사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이탈리아 로마 A.I.D.M 성악과를 졸업한 조창후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독일예술가곡의 정수를 들려주고 있다. 해설을 맡은 테너 김호철은 중앙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에센국립음대 대학원을, 반주자인 이문선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 BIFF 20주년 기념 시네마음악회

일 시 | 9월 5일 토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



부산국제영화제 20주년을 기념하는 시네마음악회. 영화감독 장진, 영화배우 남규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현재와 미래의 성공을 부산시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이다.

1부에서는 '영광의 BIFF'라는 주제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마에스트로 오충근, 소프라노 전소은,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4Singers(전병호, 김동원, 홍지형, 최중우)가 BIFF 20년의 영광을 재현하며 BIFF의 대표 얼굴인 김동호, 영화배우 설경구, 여진구 등 특별게스트와의 만남도 마련되어 있다.

2부 무대인 '열정의 BIFF'에서는 영화를 사랑하고 음악을 즐기는 K-POP 대표 가수 씨스타, 조성모, 이정, 김수철밴드가 출연, 그들의 히트곡과 영화 OST를 들려준다.

## 2015 제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III

### 멕시코 할리스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일 시 | 9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 516-8293~4, www.bmimf.co.kr

...

2015 제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화려한 개막을 알렸던 멕시코 할리스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무대. 멕시코의 뛰어난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조세 로론에 의해 할리스코 주 과달라하라에서 창단된 할리스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마에스트로 마르코 패리스토를 영입하면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마에스트로 마르코 패리스토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낭만과 열정이 어우러진 멕시코음악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환상적 서곡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바그너/오페라 '발퀴레' 중 '발퀴레의 기행'  
Severiano Briseno/EI Sinaloense  
Pope Guizar/Guadalajara  
마르케스/단순 제2번 등

## 2015 제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양상블 콘서트

일 시 | 9월 7일(월), 9일(수)~11일(금)

오후 7:30 區 문화회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첫 선을 보인 제6회 부산국제마루음악제 양상블 콘서트.

### 7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플루티스트 다케히토 하시모토와 오보이스트 요스케 테라시마, 바수니스트 장정호, 클라리네티스트 로버트 바로스, 호르니스트 제럴드

우드로 결성된 BMIMF 목관5중주단과 싱가포르의 피아니스트 보리스 크랄체빅, 폴란드 작곡가 카지미라크 마칼라의 무대.

### 9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2014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창작곡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캐나다 작곡가 시몬 버트렌드의 초연곡을 들려주는 캐나다계 한국인 피아니스트 워니송과 엔리코 드 밀리도(트럼펫), 에리카 페로니(트럼펫), 다니

엘 나보네(호른), 엘리나 베로네제(트롬본, 아고스티노 마르첼리(튜바)로 구성된 이탈리아의 와키 브라스퀸텟의 무대.

###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작품 27 제2번 '월광'  
시몬 버트렌드/manifestations nocturnes (세계 초연)

히나스테라/아르헨티나의 춤곡 등

### 9일 사상문화원 다누림홀

옥타비아노 크리스토포리(트럼펫), 히로시 하시모토(트럼펫), 쓰도우 마루야마(호른), 코지로 후지하라(트롬본), 카즈히로 야규(튜바)로 구성된 재팬 필하모닉 금관5중주의 무대.

### 10일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이탈리아 와키 브라스 양상블과 훈난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의 무대.

### 11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색소포니스트 디오니시 루소스, 일리아스 삼소노브, 테오도로 케르케조스, 귀도 플라비소 구성된 색소폰4중주와 러시아의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사파리안트의 무대.

###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4개의 모음곡

장 밥티스트 세나이에/듀오 콘체르탄테

장 프랑세/차르다시

거쉬인/랩소디 인 블루 등

## 서성은 첼로 리사이틀

일 시 | 9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예고 재학 중 독일로 유학,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를 만점 및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졸업하고 Konzertdiplom 과정을 월반, 동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첼리스트 서성은 리사이틀.

지난 2011년 귀국독주회로 국내 활동을 시작한 서성은 현재 조이오브스트링스 멤버, 센토챔버소사 이어더, 움첸버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동아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환상소품집 작품 73

헨델-할보르센/파사칼리아

브람스/소나타 바장조

• 피아노/윤민영

• 찬조출연/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

## 손경순 오르간독주회

일 시 | 9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중앙교회 은혜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손경순 010-3226-3258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독일 하이델베르크 교회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 서문교회 오르가니스트, 부산오르가노 회장, 한국오르가니스트협회 이사로서 있는 오르가니스트 손경순 독주회.

손경순은 그동안 세종문화회관, 경동교회, 서울교회, 독일 Darmstadt의 Paulus 교회, 미국 Tacoma의 Christ 교회, 미국 Lynnwood Trinity Lutheran 교회 등에서의 독주회를 비롯해 프라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 바흐 마태수난곡, 요한 수난곡,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헨델의 메시아, 존 루터의 레퀴엠, 멘델스존 엘리야, 바울 등 다양한 무대에서 오르간 반주를 맡는 등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 |프로그램|

복스테후테/오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바흐/환타지와 푸가 사단조 BWV 542 등

## 제2회 관악대축제

일 시 | 9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초대(무료)

문 의 | 정남기 010-5575-9018

동아대학교와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윈드오케스트라가 펼치는 제2회 관악대축제.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해운대국립청소년오케스트라 단장 겸 지휘자,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음악감독 겸 지휘자, 시노투스 윈드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지휘자,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겸임교수로 있는 정우영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동주여고와 동의대학교에서 윈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송기태의 지휘로 웅장한 관악의 향연을 펼친다.

• 지휘/정우영, 송기태

• 협연/김채운(타악, 동의대학교 3학년), 윤혜연(플루트, 동아대학교 2학년), 윤빛나리(클라리넷, 부산대학교 4학년), 장지혜(타악, 부산대학교 4학년)



## 제15회 테너 이철성 독창회

일 시 | 9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프리모 아트 매니저먼트

010-9334-6105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엔리코 카루소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테너 이철성 독창회.

부산대학교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까를로 베르곤지, 오르페오, 보게라, 손드리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선텐합창

단, 중앙성당, 부부중창단 도란도란, 아마빌리스 중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성은 그동안 독창회를 비롯 국내외 교향악단과의 협연, 오페라 주역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 |프로그램|

카푸아/부드러운 네 불에 입 맞추네, 마리아 마리아 덴짜/선녀의 눈, 푸른 눈동자, 만억에 커티스/우혹, 당신을 사랑해요, 고독 등 수곡

• 피아노/김경미

• 특별출연/D-child, 김윤수(퍼커션)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캔버스 위의 탱고**  
with 비올리스트 가영

일 시 | 9월 8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미술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인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가영의 해설과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영상매프를 통해 캔버스 위에 머물러 있던 인상주의, 추상주의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무대로 옮겨 음악과 미술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로 꾸며진다.

클래식에서부터 재즈, 크로스오버를 넘나들며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가영은 그동안 탱고풍 크로스오버 앨범 1, 2집에 이어 최근 본인이 직접 작곡, 편곡에 참여한 3집 앨범 'Chanson de Viola'를 발매하기도 했다.

- 비올라, 해설/가영
- 기타/박운우
- 피아노/박중현

2015 제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VI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

일 시 | 9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  
516-8293~4, www.bmimf.co.kr

올해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공동 주최한 국립부산국악원의 특별한 무대. 상임지휘자 권성택의 지휘로 부산, 영남지역의 전통공연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과 목관3중주, 투바공화국의 전통적인 목노래인 '후메이'를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 원일/피리협주곡 '가산향'
- 대금, 아쟁 2중협주곡 '민요연곡'(편곡/황호준)
- 윤이상(편곡/강준일)/대금3중주 'Salrome'
- 박경란/남창과 무용수를 위한 '백구시'
- 몽골 후메이
- 김대성/관현악 '청산' 등
- 협연/요스케 데라시마(오보에), 로버트 바로스(클라리넷), 장정호(바순), 몽크친 푸레베쿠(후메이)

부산가야금연주단 제11회 정기연주회  
**천년의 소리\_마음을 그리다**

일 시 | 9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1만원  
문의 | 부산가야금연주단 010-3273-8184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부산가야금연주단의 11번째 정기연주회,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초대 음악감독을 역임한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를 중심으로 가야금 전공자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가야금연주단은 2005년 창

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독창적인 구성의 정기연주회, 해외 초청 연주회, 특별연주회, 상설공연 등 연간 20~30회의 무대를 가져오고 있다. 중앙관현악단 부지휘자, 여수시립국악단 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이경섭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산가야금연주단 악장 최미란, 부산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원 김현숙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야금오케스트라의 특별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제43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두개의 사랑**

일 시 | 9월 10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3



국내외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9월 무대,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있는 T.I.F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2015 명품콘서트 창작 관현악곡 공모에서 선정된 작곡가 진소영의 창작곡 'Maskentans Concerto'를 비롯해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동성이 협연하는 쇼팽 '피아노협주곡 제1번 작품 11', 국민음악적 색채가 짙은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김원명 • 지휘/이효상
- 작곡/진소영 • 협연/피아니스트 이동성
- 연주/T.I.F 심포니오케스트라

**이리나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락연 010-9610-9465



창원시립교향악단 악장이자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IPB)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 독주회, 미국 줄리어드 예비학교, 줄리어드음악대를 졸업하고 영국으로 건너가 왕실음악학교를 수료하고 다시 미국 메네스음악대에서 대학원과

정과정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이리나는 뉴욕 인터네셔널 영 아티스트 콘테스트에서 우승, 카네기홀에서 데뷔독주회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2008년 귀국 후 매년 독주회를 비롯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이리나는 현재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부산MBC 라디오 '이리나의 Kiss the Classic' 진행자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제17번 다장조 K. 296
- 스트라빈스키/이탈리아 모음곡 등
- 피아노/박민선 • 첼로/양욱진

2015 부산거문고악회 거문고 일곱 마당  
**임세란, 백민정 '동행'**

일 시 |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거문고악회 010-4202-3003

거문고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연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이 가능한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부산거문고악회가 마련한 특별기획콘서트시리즈 '거문고 일곱 마당' 네 번째 무대. 전통음악에서부터 현대음악, 부산이 지닌 각 계절의 색깔을 반영한 창작위촉곡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주는 '거문고 일곱 마당'은 특히 소극장 연주를 통해 연주자의 호흡소리를 들으며 거문고의 생생한 원음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9월 무대에서는 거문고주자 임세란, 백민정의 거문고 앙상블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 향병기/춘설
- 두 대의 거문고와 피아노를 위한 흥타령
- 두 대의 거문고와 판소리
- 정대석/수리재
- 음악감독/권은영
- 기획, 홍보/김현경

## 온가족이 함께하는 오페라 '마술피리'

일 시 | 9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12일 토요일 오후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동래문화회관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 무대로 마련한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모차르트 마지막 오페라로 유명한 '마술피리'는 이탈리아어로 부르는 정통오페라와는 달리 서민들을 위한 소박한 징슈piel(Singspiel, 연극처럼 중간에 대사가 들어있는 독일어 노래극)로, 세대를 넘나드는 특유의 감성과 유쾌함 속에 아름다운 아리아, 진지한 종교음악 등이 절묘하게 녹아 있어 오페라의 다채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예술총감독/김경 • 연출/김성경



## 조아라 세번째 판소리 발표회 소리의 흥에 취하다

일 시 | 9월 13일 일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예시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조아라 010-8288-0500



현재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흥보가' 전수장학생으로 있는 소리꾼 조아라의 세 번째 판소리 발표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한 조아라는 제38회 동래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에서 대상(국회의

장상)를 수상한 바 있다.

소리꾼 조아라가 들려주는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주제로 한 판소리 눈대목들과 부산에서는 보기 힘든 진도씻김굿,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흥보가' 예능보유자인 정순임 명창의 남도민요 등 다양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 특별출연/명창 정순임

• 고수/박재현 • 바라지, 창/전태원  
• 대금/오교선 • 피리/지영재  
• 아쟁/정선경

## 해금·아쟁연주단 奚牙淵 정기연주회 2015 활의 노래

일 시 |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무료  
문의 | 해금·아쟁연주단 奚牙淵  
010-9317-7606

지난 2013년 해금, 아쟁연주자들로 구성된 해금·아쟁연주단 '해아연(奚牙淵)'의 정기연주회 '2015 활의 노래'. 천년을 이어온 해금과 아쟁의 선율을 전하기 위해 기특한 해아연(奚牙淵)은 관악의 편성에 포함되는 현악기로, '활'로 연주하는 두 악기의 공통점을 살려 21세기 한국의 소리를 대표하면서 이 세상의 다양한 음악을 풀어내고 있는 해금과 중후하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우리 음악의 중저음을 맡고 있는 아쟁으로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프로그램|**

취타·길군악

최경철/대아쟁과 옥류금을 위한 중주곡 '絃과 바람'  
류형선(편곡/차민영)/해금 2중주 '나무가 있는 언덕'  
최재호/해금·아쟁·Penny Whistle 3중주 '자귀의 탄성'

이정연/활의 노래 등 수곡

• 연주/T.I.F 심포니오케스트라

## 김현수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우리아트 920-9545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중앙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차이코프스키 국립음대에 재학 중인 피아니스트 김현수 독주회.

러시아 바르나울 국제콩쿠르 3위, 러시아 노보쿠즈네스크 국제콩쿠르 2위, 성정콩쿠르 2위, 음교콩쿠르 2위, 경향콩쿠르 대상, 동의대콩쿠르 대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김현수는 그동안 벨기에 primavera festival, 이스라엘 Tel-hai festival, 오스트리아 Mozarteum festival, 뉴욕 IKIF festival, 모스크바 라흐마니노프홀 연주, 노보시비리스크 한인음악회, 부산청소년음악회,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브람스/피아노 소나타 다장조

쇼팽/스케르초 제2번 내림나단조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라장조 작품 311 등

## 김은정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9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독일로 유학,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사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신시네티 음악대학에서 최고연주자 과정과 연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피아니스트 김정은 독주회.

지난 2014년 귀국 독주회 이후 솔리스트, 실내악연주자, 반주자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은 현재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독우회 회원, Cincy-A 피아노 트리오 멤버로 활동하며 부산예술중, 예고에 출강하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가단조 K.310

그라나도스 12개의 스페인 춤곡 작품 5

라흐마니노프/7개의 살롱풍의 소품 제3번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라장조 작품 23 제4번

라흐마니노프/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42

## 금성빈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9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금성빈 010-4248-6828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부퍼탈 국립음대 석사, 자브뤼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금성빈의 귀국독주회.

독일 아헨 국립극장, 포르츠하임 국립극장, 팔츠 국립극장 오케스트라 단원을 역임한 바 있는 금성빈은

귀국 후 클래식음악에 대한 새로운 신념과 열정을 선보인 '금성빈의 플러스 음악회', '심 콘서트' 등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이 분명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5번 바장조 작품 24 '봄'

생생/하바네라 작품 83

슈만/소나타 제1번 가단조 작품 105

2015 두레리움 실내악축제 4  
양성원의 트리오 오원(吾園)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전곡연주회’

일 시 | 9월 14일-15일 월-화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한여름 영화의전당에서 펼쳐지는 두레리움 실내악 축제 2015년 마지막 무대인 양성원의 트리오 오원(吾園)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전곡연주회’.  
지적이면서도 독창적인 해석으로 찬사 받고 있는 첼리스트 양성원이 프랑스 파리음악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슈트르세,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르에와 함께 결성한 트리오 오원(吾園)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문화적, 지역적 경계를 허물어 다채로운 예술적 영감을 함께 공유해왔다.



해피양상블 드라마콘서트  
응답하라 학창시절

일 시 |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해피양상블 010-3839-1084

지난 2002년 이태리, 독일, 러시아 등에서 해외 유학을 마친 남성 성악가로, 현재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외래교수들로 구성된 해피양상블 드라마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응답하라 학창시절’이라는 주제로 학창시절 이야기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드라마 형식의 음악회를 선보인다.  
•출연/테너 이홍길, 황성학, 신대현, 이승우, 조동훈, 우원석, 바리톤 고정현, 김대성, 장진웅, 베이스 김정대, 박상진, 안세범  
•피아노/안선애 •특별출연/소프라노 설은경



2015년 작곡그룹 An-ti Stimmung 기획연주회  
안티스티몽이 들려주는  
부산이야기

일 시 |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안티스티몽 010-8212-0222

매년 새로운 주제에 도전해온 현대음악 작곡그룹 안티스티몽(An-ti Stimmung)의 창작곡 발표회.  
지난 2000년 창단된 후 21세기 창작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현대적인 특징을 극대화하면서도 청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노력해온 안티스티몽은 이번 무대에서 작곡가 조희주, 정수란, 주창근, 정지영, 진소영, 황선영, 박기섭, 진영민, 김유리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Program  
Guide >>

THE SOLOISTSs 창단공연

일 시 | 9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 아카디아 070-4738-5441

국내외 교향악단에서의 풍부한 연주경험을 바탕으로 최고 실력을 쌓은 다양한 솔로 연주자들로 결성된 ‘더 솔로이스츠(THE SOLOISTS)’의 창단무대.  
지휘자 없이 연주자들의 호흡과 신뢰만으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 내고 있는 ‘더 솔로이스츠’는 현과 관, 건반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악기구성을 통해 다양한 레퍼토리와 완벽한 사운드, 묵직한 울림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프렐류드와 스케르초 작품 11  
생상/덴마크와 러시아 노래에 의한 카프리스 작품 79  
차이코프스키/플로렌스의 추억 작품 70  
•연주/김동욱(플루트), 김민경(바이올린), 김은진(비올라), 오현진(첼로), 윤대준(바순), 이기모(바이올린), 이연숙(오보에), 전후국(바이올린), 정성흥(피아노), 조무종(바이올린), 최우선(클라리넷), 한수진(바이올린)

해설과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강충모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9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중·대학생 2만원, 초등학교생 1만원  
문의 | 강지영 010-4629-3247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강충모가 청소년을 위해 마련하는 강충모 피아노 리사이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후 도미, 샌프란시스코 콘서바토리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피바디 컨서바토리에 박사과정을 이수하던 중, 피바디음대 교수 채용 오디션에서 선발되어 피바디음대 교수를 역임하기도 한 강충모는 지난 2011년에는 국내 피아니스트로는 최초로 명문 줄리어드음대 교수로 초빙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의 제자들이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는 등 교육자로서 탁월한 역할을 지닌 강충모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 귀에 친숙한 레퍼토리로 청소년들을 클래식 의 세계로 안내한다.

정다희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9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정다희 010-6379-9333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한 후 도미, 미국 보스턴대학교 석사 졸업 및 연주자 과정 수료, 미시간주립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The Blossom 멤버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정다희 독주회.  
미시간주립대학교 재학 중 MSU Symphony Orchestra, Alma Symphony Orchestra, Lansing Symphony Orchestra 객원 수석단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정다희는 현재 부산예술중고등학교 외래 교수, 양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도강사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동서남북 각 유럽을 대표하는 작곡가 코다이, 드뷔시, 시라사테, 그리그의 곡을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해설/박주희  
•피아노/김영실

수아트홀 기획 영아티스트 콘서트  
**김성주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9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수아트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수아트홀 744-1415



2015 G. Raciti 국제콩쿠르 1위 및 'Amigdala' 특별상을 비롯해 2015 KSME 콩쿠르 전체대상, 2015 Global Artist 음악콩쿠르 1위, 2014 벤들롱 피아노 콩쿠르 1위, 2014 마이스터 장학콩쿠르 대상을 수상한 차세대 피아니스트 김성주 독

주회.  
[프로그램]  
하이든/소나타 Hob XVI:46  
쇼팽/에튀드 작품 25 제11번  
리스트/초절기교 연습곡 제4번 '마제파'  
베토벤/소나타 작품 31 제2번  
브람스/소나타 작품 5

부산베누스토오케스트라 창작악극 공연  
**그때 그 시절 (부제:양철지붕의 추억)**

일 시 | 9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베누스토오케스트라 010-9026-3936



지난 2004년 메말라가는 현대사회에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친목도모는 물론 자아실현을 위해 창단된 부산베누스토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창작악극 '그때 그 시절'.

'양철지붕의 추억'이라는 부제가 있는 창작악극 '그때 그 시절'은 지난 1970년대 산업화의 붐이 일면서 부산으로 몰려온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부산 동구지역의 산복도로 마을을 배경으로 그 시절 우리들의 삶과 애환, 이러한 추억을 악곡으로 풀어낸다.  
• 대본/이훈주 · 작사, 작곡/조흥용  
• 연출/최성우(극단 이그라 대표)  
• 연주/부산베누스토오케스트라(지휘/최봉은)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바움 캄머 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초중고생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부산대학교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명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인 바이올리니스트 심신지,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으로 있는 첼리스트 윤주연, 부산음악협회 콩쿠르에서 대학부 1위에 입상한 피아니스트 이연주로 구성된 바움 캄머 앙상블의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글리에르/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사라사테/나바라  
쇼팽/발라드 1번 등



2015 폴리포니 기타듀오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19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서승완 010-5198-0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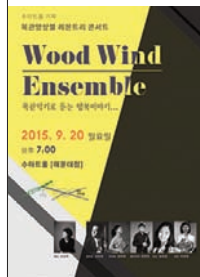
2006년 클래식 기타리스트 서승완, 김경태로 구성된 후 클래식에서부터 현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폴리포니 기타듀오의 2015년 정기연주회.

'폴리포니(Polyphony)'는 원래 '다성음악'이라는 뜻으로 독주로 표현하기 힘든

좀더 입체적인 음악적 표현을 추구하고자 붙인 이름이다.  
2012년과 2015년 통영 윤이상국제음악제 프린지에 참가해 두차례 'Rising Star'로 선정된 바 있는 폴리포니 기타듀오는 2011년 발매된 첫 음반 'Song of Polyphony'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음반 'Song of Polyphony 2' 발매를 기념해 9월 9일 진주를 시작으로 통영, 서울을 거쳐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음반 발매 기념 연주회를 갖는다.

수아트홀 기획  
**목관앙상블 레몬트리 콘서트 '목관악기로 듣는 행복이야기'**

일 시 | 9월 20일 일요일 오후 7:00  
수아트홀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수아트홀 744-1415



플루티스트 김인호, 오보이스트 김미영, 클라리네티스트 원준연, 바수니스트 양희경, 호른리스트 이민정으로 결성된 목관앙상블 레몬트리 콘서트.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바흐/인류의 기쁨되신 예수

조플린/엔터테이너  
오펜바흐/자클린의 눈물  
그리그/페르귄트 등 수곡  
• 첼로/이지수  
• 해설/김성희

제5회 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정기연주회  
**스승과 제자의 사랑음악회**

일 시 | 9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627-8403



전통음악에서 퓨전음악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교육과정으로 국악교육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1년 개설된 후 실기 중심의 교육으로 전문예능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가·무·악(歌·舞·樂)의 총체적인 교육과 더불어 이론 교육을 실시해온 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성악에서부터 기악, 타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무대에 올려왔다.

• 해설/정영진(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 음악감독/신문범(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학과장)  
• 연출/강열우(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 영아티스트 콘서트 정희정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9월 20일 일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민유숨 010-2319-1694

...



신라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정희정 독주회.

정희정은 KSME 한국음악 교육협회 대학 현악부 1등,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경상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Kassel 음대 전문연주자 과정 및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민유숨이 함께한다.

**|프로그램|**

브람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스케르초 단조 베토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3번

내림마장조 작품 12

프로코피에프/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2번 라장조 작품 94

## 소프라노 임혜정 독창회 'Soli Deo Gloria'

일 시 | 9월 21일 월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우리아트 920-9545

...



고신대학교 성악과와 동아대학교 대학원, 체코 OPAVA 음악원, 오스트리아 빈음악원, 이태리 A.R.A.M 음악원, 이태리 Verona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교육원 외래교수, 동의대학교 학점제 콘서트바토리 성악과 외래교

수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임혜정 독창회. 그동안 5차례 독창회를 비롯해 체코 시립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오페라 주역, 오라토리오 솔리스트로 다양한 무대에 서온 임혜정은 이번 무대에서 국내외 성가곡을 들려준다.

- 베이스 바리톤/양재원
- 피아노/김현경
- 바이올린/우소라
- 첼로/심지현
- 클라리넷/김성준
- 해설/최윤성

## 전통예술단 버선길 다섯 번째 공연 전통, 조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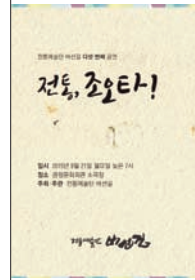
일 시 | 9월 21일 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전통예술단 버선길 010-3886-9210

...



민요와 판소리, 가야금병창, 기악, 전통타악 등 국악전공자들로 구성된 후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우리 소리의 신명을 전해온 전통예술단 버선길의 다섯 번째 정기공연.

전통예술단 버선길은 지난해 8월 창단공연을 가진 후 정기공연을 비롯해 부산시

립병원, 의령 사랑의 집, 금정요양원 위문공연, 금정실버축제,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송년의 밤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모듬북 공연 '복을 올려라', 화선무(임이조류),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경기잡가 '제비가', 동래하춤, 경기민요 '방아타령, 장기타령', 남도창작판소리 '완산칠봉 바람아', 국악가요 '배 띄워라'

## (사)부산네오파필하모닉오케스트라(BNO) 오페라 콘서트

일 시 | 9월 21일-22일 월-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부산네오파필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010-8515-7020

...



2013년부터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해온 (사)부산네오파필하모닉오케스트라(BNO) '오페라 콘서트'.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라 트라비아타', '세빌리아의 이발사', '카르멘' 등 세 편의 오페라를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조윤희,

허동권, 소프라노 구민영, 김민성,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바리톤 박대용, 베이스 김태경 등 성악가들이 출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21일/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22일/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카르멘'

• 음악감독 및 지휘/홍성택 • 총연출/오세준

## 2015 추석맞이 국악대제전 을숙도 힐링콘서트

일 시 | 9월 21일-24일 월-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



민족의 최대명절 추석을 맞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마련하는 국악대제전.

부산가야금연주단 대표이자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가야금 명인 김남순과 악가·무 형태의 종합예술단체인 T-band 'BLUE'(21일), 중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인 명창 신영희, 전통음악의 보급과 현대화 작업을 통해 대중들에게 새로운 국악을 들려주고 있는 실내악단 '산·바다·해'(22일), 국악기로 모든 음악을 연주하겠다는 목표로 모인 퓨전국악팀 '초아'(23일), 제15회 경기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경서도소리연구회 위원장으로 있는 김보연(24일) 등이 출연, 나날한 다양한 장르의 국악향연을 펼친다.

## 신현주 가야금병창 독주회 적토성산(積土成山)

일 시 | 9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신현주 010-9325-2950

...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전수자로 있는 신현주 가야금병창 독주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신현주는 1999 제3회 청소년 축제 한마당 국악경연대회 대상(부산광역시), 2003 제10회 전국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 종합대상(문화관광부 장관), 2003 제5회 수원대 공쿠르 국악(성악) 1등, 2006 제13회 부산국악대전 가야금병창 부문 일반부 차상, 2009 제27회 신라문화재 전국국악대제전 가야금병창 부문 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단가 죽장망해, '흥보가' 중 '구만리', '제비잡고~제비노정기', 함동정월류 가야금산조, 사랑의 춤, '적벽가' 중 '회룡도'

###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11, 12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이승미, 손은혜

일 시 | 9월 24일 목요일 오후 7:00  
소민아트센터 아트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 소민아트센터 991-2200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 987-5005

...  
동아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부산과 경주에서 독주회를 가졌던 피아니스트 이승미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미국 신시내티움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손은혜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지는 청년음악가 시리즈 9월 무대.  
• 진행/김창욱



### 김성숙, 형희전 듀오 음악회 VOYAGE

일 시 | 9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성수 010-5405-7483

...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성숙, 형희전의 듀오 무대. 김성숙은 이화여대 피아노과와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덕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형희전은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피아노 교수법 석사, 피아노 연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ISAM 이사, 선화예술고교에 출강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벨리니를 시작으로 노르웨이(그리그), 프랑스(드뷔시), 독일(슈베르트, 슈만), 러시아(라흐마니노프) 등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9회 프롬나드콘서트

일 시 | 9월 24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를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990-7042~7

...  
매월 넷째주 목요일 펼쳐지는 프롬나드 콘서트는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의 후원을 통해 지역 문화와 공연 단체에 대한 지원을 물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가 비발디 '사계' 중 '가을'을 들려준다. 미국 맨하튼 음대와 매릴랜드 주립대학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양경아는 Artist international 콩쿠르 입상, Nimf 국제콩쿠르 2위에 입상한 바 있다.



### 부산리코더앙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25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강희숙 010-2562-6561



서양 바로크시대의 대표적인 관악기이자 오늘날 기초 음악 교육과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새로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리코더의 가능성을 알리고자 결성된 부산리코더앙상블(리더 강희숙)의 제8회 정기연주회. 지난 2006년 결성된 후 정통 바로크 음악에서부터 클래식 명곡, 드라마 주제곡, 창작곡 등 다양한 연주 프로그램을 통해 리코더의 매력을 선사해온 부산리코더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도 바흐, 퍼셀, 텔레만 등 바로크 시대의 주옥같은 작품들과 비발디, 피아졸라, 아바 메들리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조익래
- 노래/손보현
- 피아노/이윤희
- 찬조출연/부산주니어리코더앙상블
- 타악/최원탁
- 기타/정하린

### Play 연극

#### 연극 '러브 액츄얼리'

일 시 | 6월 5일(금)~1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축제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1만 3천원, 주말 1만 5천원)  
문의 | ㈜플레이더부산 1600-0316



사랑에 대한 3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연극 '러브 액츄얼리'. 따끈따끈한 연애 100일 커플에서 슬슬 권태기에 접어드는 1,000일 커플, 연인 이기보다는 이제는 가족같은 10년 커플을 통해 만남의 기간에 따라 변하는 연

인간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보여주는 '러브액츄얼리'는 지난 199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무대와 다양한 소품 외에도 19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노래가 관객들을 아련한 추억 속으로 이끈다.  
• 연출/이성호

### 로맨틱 코미디극 '쌘남쌘녀'

일 시 | 6월 23일(화)~9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기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SM기획 1600-1602



꿈을 가지고 서울로 향하는 첫날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 정미, 우연히 모르는 남자 태일을 만나면서 결국 그들은 동거하는 상황까지 이르는데, 도시남자 태일과 시골여자 정미, 과연 이들은 잘 지낼 수 있을까... 달라서 더 흥미로운 두 남녀의 이슬이슬한 동거 이야기가 관객들의 잠들어있는 연애세포를 깨워준다.

- 작, 연출/전정인
- 출연/김동현, 장선아, 조충범

## 연극 '몽타주'

일 시 | 7월 9일(목)~9월 13일(일) 오후 5:00, 8: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



떠들썩한 교묘하게 얽혀있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사실적이면서도 박진감 넘치게 펼쳐지는 연극 '몽타주'.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범을 쫓기 위해 천재적인 몽타주 화가로 성장한 서정민과 연쇄살인범 유홍준,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서정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력반 형사 조상철과 서정민의 친오빠 서정훈의 치밀한 추리게임을 그린 작품으로, 개성넘치는 인물들의 숨겨진 사연이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서서히 드러난다.

- 작, 연출/김세환
- 출연/김빛나래, 안요찬, 정육권, 김재민

## 연극 '작업의 정석'

일 시 | 7월 30일(목)~10월 2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



손예진, 송일국 주연의 동명 영화를 각색한 작품으로, 2012년 6월 첫 공연 이후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대학로를 대표하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으로 자리잡은 연극 '작업의 정석'. 소위 연애의 '고수'를 자처하는 두 남녀가 우연히 마주치면서 벌이는 밀고 당기는 연애 명승부를 통해 관객들에게 작업의 비법을 전수하는 '작업의 정석'은 고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성의 심리를 코믹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그려낸 로맨틱 코미디극이다.

- 출연/김대우, 황선주, 한세희, 황재훈, 장우진, 도우리, 김민지

## 연극 '맛의 기억'

일 시 | 8월 14일(금)~9월 29일(화)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3:00, 6:00

AN아트홀.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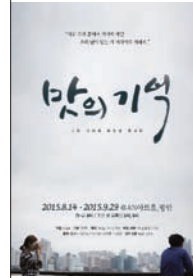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1만 3천원, 주말 1만 5천원)

문 의 | ㈜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 '집 밥'을 소재로 한 연극 '맛의 기억'. 기억을 잃어버린 채 비타가를 떠돌고 있던 여방, 그런 여방을 미행한 수상한 그녀 수정. 사람 감각 중 미각이 기억에 제일 오래 남는다는 여방은 부산에 유명한 먹거리는 죄다 먹었지만 기억을 찾지 못한다. 그런 여방을 보며 수정은 집 밥으로 여방의 기억을 찾으려고 하는데... 수정은 과연 여방의 기억을 찾아줄 수 있을까?

연극 '맛의 기억'은 부산 사람들에게는 친근하고 타지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부산 앞바다를 배경으로, 관객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간다.

- 작/이민혁
- 연출/이성호

## 극단 여정의 네번째 여정 병원앳가다

일 시 | 8월 27일(목)~9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일요일 오후 3:00 **나다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예매시 50% 할인)

문 의 | 극단 여정 010-5133-1220

...



휴양지 근처의 종합병원, 그 곳에는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다. 의사로서 자신의 매너리즘에 지쳐가는 석현. 악플에 시달리는 한물간 여배우 도경, 기이한 행동을 하는 의문의 소녀 혜운, 오랜 인고 끝에 아기를 가진 정안과 미연 부부, 그리고 교통사고 한

자로 위장을 하고 입원한 대로 등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행복과 불행은 예고도 없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 극단 여정의 '병원앳가다'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병원을 배경으로, 저마다의 사연을 지닌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며 우리가 찾는 본질의 치유를 그려낸 작품이다.
- 작/박영준
  - 연출/김태호
  - 출연/이재영, 박명정, 구남용, 유윤주, 권혁진, 이현옥, 박영준, 양은미, 강정희

## 2015 한결아트홀 채훈전 3 채훈단편선 '채훈의 단편소설은 이렇게 각색된다'

일 시 | 9월 1일(화)~6일(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 5천원

중고생 2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



소설가로서 더 유명했던 채훈의 단편소설 5편을 이운택, 김소희, 오세혁 등 세 명의 연출가가 각기 다른 스타일로 연출하는 한결아트홀 채훈전 3번째 무대.

연희단거리매 꼭두쇠이자 채훈전을 기획한 연출가 이운택의 '사람 데리고 장난치지 마세요(원작 '우유부단)', '철없는 아내(원작 '아내)'를 시작으로 대학로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극단 걸판의 대표 오세혁이 특유의 재기 발랄함으로 재해석(원작 '어느 관리의 죽음)', '이발소에서', '드라마를, 채훈의 희곡 '갈매기'를 신선한 해석과 명쾌한 연출력으로 선보인 연희단거리매 대표 김소희가 '적'을 선보인다.

## 연극 '엄마, 다시 가을이 오면...'

일 시 | 9월 4일(금)~19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



오직 직식을 바라보며 세상을 버티어 온 엄마. 엄마는 잘 맞춰진 퍼즐처럼 세상에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딸에게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구질구질한 노년의 짐착으로만 다가온다. 그런 엄마에게서 딸은 독립을 선언하지만 세상의 풍파를 맨몸으로 이겨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법. 녹록지 못한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엄마를 닮아 가고 힘겨운 삶의 태풍이 거세질수록 딸은 점점 더 엄마를 그리워하게 되는데...

- 철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묶여진 관계,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그린 창작극 '엄마, 다시 가을이 오면...'
- 작, 연출/전상배
  - 드라마투르그, 기획/황미애
  - 출연/우영희, 박다숨

### 악극 '불효자는 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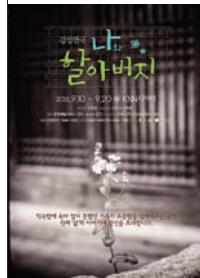
일 시 | 9월 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6일 일요일 오후 2:00, 6: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문 의 | (주)WSM 1566-5490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선사하는 1990년대 최고 흥행 명품악극의 부활 '불효자는 읍니다'. 1998년 초연 당시 21회 전석 매진 행렬을 이루며 공연계 최초 10만 관객을 동원한 '불효자는 읍니다'는 가장 힘든 시기였던 한국전쟁에서부터 한국 현대사의 치열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와 오직 성공만이 유일한 목표인 아들을 통해 가족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주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의 위대함을 재조명한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다양한 어머니의 모습을 선사하며 국민어머니로 불리는 연기자 김영옥과 초연 때부터 함께해온 이덕화가 어머니와 아들로 등장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1990년대 코미디언 겸 MC로 왕성한 활동을 펼친 이흥렬이 변사로 등장해 재치있는 입담으로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연극 '나와 할아버지'

일 시 | 9월 10일(목)~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9/10일~11일 프리뷰  
할인 2만원, 9/9일까지 조기예매시  
2만 1천원)  
문 의 | 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비쁜 일상 속에서 쉽게 잊고 지내는 가족의 소중함을 따뜻한 감동으로 선사하는 연극 '나와 할아버지'. 멋진 멜로드라마를 쓰고 싶은 공연대본 작가 준희가 전쟁 통에 헤어진 옛 연인을 찾아 나서는 할아버지와 동행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나와 할아버지'는 연출가인 민준호가 실제 자신과 할아버지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수필극 형태로 풀어낸 작품으로, 대학로의 자극적이고 화려한 작품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무대장치나 효과 없이 소박하면서도 감동적인 대본과 배우들의 빛나는 연기 앙상블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출연/한갑수, 손지윤, 김호진, 박정표, 차용학

### 토종 코메디 가족극 '강부자의 오구'

일 시 |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4일  
일요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A석 5만 5천원  
문 의 | (주)아이스타미디어 1644-4146



망자에 대한 슬픔을 한국 특유의 해학적 정서로 익살스럽게 또는 진지하게 그려낸 토종 코메디 가족극 '강부자의 오구'. 지난 1989년 초연무대를 가진 후 지금까지 1,200여회 공연, 260만 관객과 만나온 '오구'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동경국제연극제, 독일 에센세계연극제, 한·중·일 3국 국제베세토연극제, 독일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초청공연 등 해외무대에서도 호평을 받아왔다. 1997년부터 '어머니' 역을 맡아 '오구'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연기자 강부자를 비롯해 이윤택 연출의 페르소나 김소희, 밀양백중놀이 인간문화재 하용부 등 원조멤버들이 신명나는 한판 굿을 펼친다.

작, 연출/이윤택

### Dancing 무용

#### 2015 현대무용단 '자유' 정기공연 justice & New Zone

일 시 | 9월 4일 금요일 오후 8:00,  
5일 토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안희주 010-2591-2628



지난 1995년 창단 이후 부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쳐온 부산현대무용단 자유의 2015년 정기공연. 올해 9월 상하이 페스티벌, 10월 리투아니아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AURA25'에 초청받은 '자유'는 이번 무대에서 현재 '자유' 대표인 박근태가 까뮈의 소설 '이방인' 2장 법정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justice'와 2015 부산무용제에서 안무상, 여자 연기상을 수상한 '자유' 단원 안선희가 직육면체 공간에서의 다각적 시선으로 새롭게 풀어낸 'New Zone'을 선보인다.

### 2015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일 시 | 9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소향씨어터 롯데캐슬**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아시아춤문화연구소 010-4756-1310



지난 2010년 국립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 교수이자 아시아춤문화연구소 소장인 김미숙 교수가 아시아를 향한 세계화의 시대적 요구에 맞춰 아시아 춤문화 교류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2015년 무대. 인도네시아 Bambang Kristiono Suwardjo의 토랭춤 및 발리 전통춤, 필리핀 Randy Carlos Guevara의 방가, 캄보디아 왕실 무용단 일급 무용수인 Sokhorn Yon의 압사라, 인도의 국가급 무용수의 까탁춤, 일본의 노중국 칸딩 국가무용단 류역부 단장의 티벳 징족춤, 한국 동영지역 승전부 보유자인 엄옥자의 동영입춤, 진주포구락부 보유자인 박철자 등 한국을 포함한 7개 아시아 각국의 신비로운 민족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 명무(名舞)류(流)일가(一家)

일 시 | 9월 13일 일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연행기획 면-얼굴 010-6657-7021

황지인, 하연화, 이윤혜 등 부산의 전통춤 맥을 잇고 있는 3인의 대표 중견춤꾼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명무(名舞)류(流)일가(一家)'. 황지인은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시 생활체조연합회 민속분과 이사, 김진홍 전통춤보존회원, 예술공동체 예인정 대표로, 하연화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부산시 지정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구 이수자, 경남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 전수자로 현재 춤패배김새 대표, 하연화무용단 대표, 경상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부산시립무용단 훈련지도자를 역임한 이윤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중요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 The林 무용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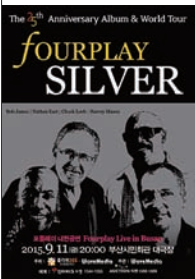




## Concerts 콘서트

### 포플레이 내한공연

일 시 | 9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3만 2천원, R석 12만 1천원  
 S석 8만 8천원  
 문 의 | (주)웨이브미디어 02-716-3316



피아니스트 밥 제임스, 기타리스트 척 록, 드러머 하비 메이슨, 베이시스트 네이던 이스트 등 각 분야 최정상에 있는 재즈 연주자 네 명으로 이루어진 포플레이 내한공연.

지난 1991년 피아니스트 밥 제임스의 'Grand Piano Canon'이라는 앨범에서 만나 세션으로 함께 연주한 후 의기투합해 결성된 포플레이는 세련된 느낌과 정교한 연주, 뛰어난 멜로디 감각으로 자신들의 스타일을 구축하며 지금까지 재즈씬(Scene) 최고의 밴드로 활동하고 있다.

## Event 행사

### 예술의 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콘서트 현대무용 '춤이 말하다'

일 시 | 9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전화예약 필수)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국립현대무용단을 대표하는 레퍼토리 중 하나인 '춤이 말하다'는 각 분야 한국 최고 무용가 6인의 몸과 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동시대의 무용을 되짚어보는 렉처 퍼포먼스 형식의 공연이다.

###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무지크바움에서 2013년부터 매일 진행 중인 클래식과 재즈 매니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9월 무대.

• 기획 및 진행 / 손명균, 박형석

### 해설이 있는 월드뮤직 음악감상(12) Andes음악과 Reggae, Calypso음악

일 시 | 9월 16일 수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입장료 | 무료(자료집 제공, 부산시민공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접수)  
 문 의 | 최정욱 010-3853-6634  
 cafe.naver.com/yefeel

###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제 99회 시낭송음악회

일 시 |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30  
 영광도서관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김옥균 010-6367-0149

###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55회 시낭송회

일 시 | 9월 22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관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 Display 전시

### 타워아트갤러리 이전개관 특별기획 2015여름-樂'展

일 시 | 8월 18(화)-9월 12(토)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 아트플라주-레인보우 비치 특별展

일 시 | 8월 21일(금)-9월 9일(수)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 예술지구\_p 포톤 '회동담화(回東談話)'

일 시 | 8월 22일(토)-9월 30일(수)  
 예술지구\_p ADP 1관  
 문 의 | 사진미디어공간 포톤 070-4322-3798,  
 010-3753-6809, www.artdp.org

사전의 전통적인 물질성을 넘어서 시각 표현 매체로써 순수미술의 영역으로 넘나들며 한국 현대미술의 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 사진계의 현재를 마주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한 '회동담화(回東談話)'.

### 복음문화를 사는 빛·선·색의 생명신비 **삶다**

일 시 | 9월 2일(수)-13일(일)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문 의 | 가톨릭센터 462-187,  
 www.bccenter.or.kr

### 다큐멘터리 사진전 '바라던, 바다!'

일 시 | 9월 2일(수)-9월 10일(목)  
 BNK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 갤러리 246-8975

경성대학교 사진학과 학생들이 제주에서 만난 사람들과 풍경 등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사진전.

### 부산대학교 서양화 대학원 단체전 '물뿔'

일 시 | 9월 12일(토)-9월 21일(월)  
 BNK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 갤러리 246-8975



### 교황 방한 1주년 기념 김경상 사진전 교종 프란치스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

일 시 | 9월 16일(수)-10월 7일(수)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문 의 | 가톨릭센터 462-187,



제266대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으로 선출된 후 '사랑'과 '화합'을 외치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1주년을 기념해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경상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기록 사진과 그의 교황 풍경 담은 사진을 선보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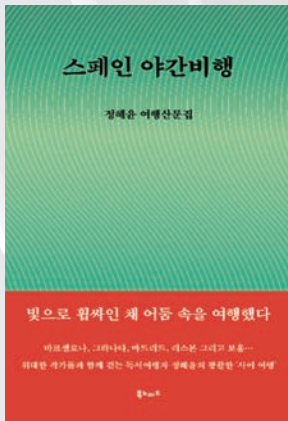
'교종 프란치스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展,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월요일 휴관)

### '조용한 비명-현실을 보다'展

일 시 | 9월 23일(수)-9월 30일(수)  
 BNK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 갤러리 246-8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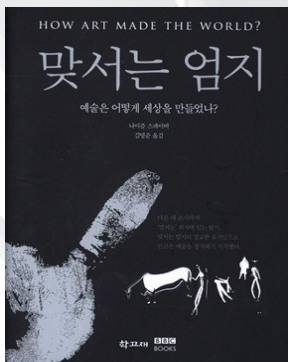
## New BOOK... 박현주 북칼럼니스트



### ❖ 스페인 야간비행

정혜윤 지음 / 북노마드 / 304p / 1만 3천 800원

CBS 라디오 프로듀서이자 우리 시대의 탁월한 북 칼럼니스트, 감각 있는 에세이스트인 정혜윤 작가의 여행산문집. 여행산문집을 펼치는 독자들은 어쩌면 책 내용보다 사진에 먼저 눈길이 먼저 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책에는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다. 여행과 여행 사진, 여행의 단상이 범람하는 시대에 정혜윤 작가는 단 한 장의 여행 사진 없이, 스페인 여러 도시와 포르투갈 리스본 그리고 필리핀 보홀의 가장 선명한 이미지를 그려낸다. 철저하게 활자만으로 빚어낸 이 여행기는 마치 형체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 전파처럼 시공을 유영한다. 그 틈에서 독자는 일종의 무중력을 경험한다. 수많은 '독서 경험', 소중한 가르침을 안겨준 '책'을 통해 시작된 '스페인 야간비행'의 여행은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여행지의 정경과 분위기를 환기한다. 구절들을 단순 발췌·인용하여 단순히 여행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간문 형식의 글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냄으로써, 독자로서 하여금 '왜 그때 그곳에 그 책을?'이라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빛과 어둠의 사이, 사진으로 찍을 수 없는 또 다른 감각의 차원에서, 작가는 자신이 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 ❖ 맞서는 엄지

나이즐 스파이비 지음, 김영준 옮김 / 학고재 / 375p / 2만 5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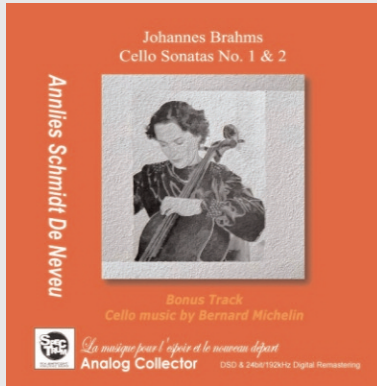
인간은 손으로 도구를 사용한다. 이것은 동물과 다른 인간의 특성이다. 고릴라, 침팬지 같은 유인원과 비교해볼 때, 인간의 손은 독특하다. 침팬지는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물건을 들어 올릴 수도 있지만, 인간과 달리 손바닥을 오목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인간의 손가락은 다른 영장류의 손가락보다 더 곧고 길쭉하다. 특히 손가락뼈가 세 마디까지 있어서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다. 또 양손에 각각 넓은 각도로 위치한 엄지손가락 덕분에 더욱 다양한 굴절과 장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다른 손가락과 '맞서는 엄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총을 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인간은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의 생각을 표현해낸다. 인간은 언제부터 특유의 상징·재현 능력을 갖추고 발휘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이즐 스파이비는 '모든 인간은 예술가'라는 표어를 내걸고 탐구를 시작했다. 저자는 고고학, 인류학, 미술사, 심리학 및 신경과학의 최신 이론을 제시하며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시도한다. 이 책은 수천 년간 5개 대륙에 예술사가 남긴 시각 이미지를 추적해 인류사를 새롭게 소개한다.



### ❖ 유럽 문화 탐사

권석하 지음 / 안나푸르나 / 364p / 1만 9천 원

현재 영국에서 살고 있는 저널리스트 권석하의 유럽 문화 탐사기. 재영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경북 봉화의 양반 마을인 달실마을 출신이다. 저자는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했으며, 1982년 무역상사 주재원으로 영국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살고 있다. 유별난 호기심과 열정으로 현지에서 정치, 역사, 문화,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심도 깊게 살피며, 영국인들도 따기 힘들다는 예술문화해설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문화권에 대한 폭넓은 글을 써왔다. 이 책은 평범한 여행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유럽 문화를 보는 새로운 감시안을 제시한다. 유럽 문화를 만들었던 인물과 유적을 탐사하는 촘촘한 여정은 우리가 여행을 통해 느끼는 진정한 휴식과는 거리가 멀다. 대문호와 예술가가 하나가 되고, 자연과 예술, 건축과 시공간이 만나는 장면들이 이어진다. 자신이 좋아했던 새로운 문화를 바라보는 행위는 치열할 뿐 아니라 절실하게 새겨지는 상념이다. 저자의 깊고 넓은 문화에 대한 강한 탐구욕은 독자를 놀라게 하고, 평범한 관광지에 던진 담백한 의문들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탐방'이 아니라 '탐사'이다.



### ❖ 안리스 슈미트 드 느브 '브람스 첼로 소나타 전곡'

▶ 고가 LP의 대명사, 안리스 슈미트 드 느브의 브람스 첼로 소나타 전곡과 베르나르 미술랭의 초절정 희귀 녹음 LP 복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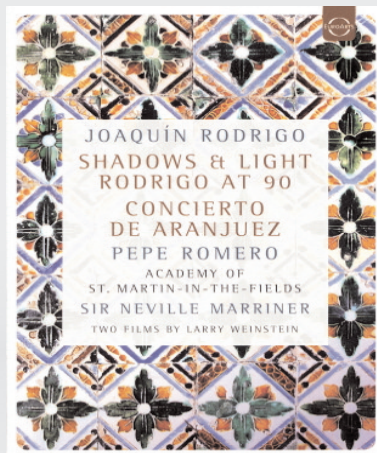
엠마뉴엘 포이어만의 제자로, Hochschule fur Musik Karlsruhe의 교수로 활동했던 독일 드레스덴 출신의 안리스 슈미트 드 느브의 브람스 첼로 소나타 전곡 레코딩이 세계 최초로 CD로 제작되었다. 안리스 슈미트 드 느브는 남겨진 레코딩이 귀하여 아날로그 LP 컬렉터들에게 초고가 LP의 대명사로 유명하다. 복각에 사용된 음원 역시 고가의 LP(500~700달러)인데, 악명 높은 반질로 유명한 프랑스의 BAM 레이블에서 발매된 스테레오 초반 LP로, 고예츠 모노 카트리지를 사용, 복각되었다. 원래 녹음은 모노로, 모노 초반 LP(BAM LD 063)로 발매되었다. 하지만 복각에 사용된 음원은 1960년대 후반에 발매된 스테레오-모노 겸용 재생이 가능한 초반 LP로, 모노 초반보다 음질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CDSMAC 024)에서 감상할 수 있었던 파격적인 템포 변화보다는 안정된 템포와 중후한 음색의 테크닉으로 브람스 첼로 소나타의 시정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 보너스 트랙으로, 역시 고가 LP로 유명한 프랑스 파리음악원 출신의 명첼리스트 베르나르 미술랭의 첼로 소품집 음원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명반주기였던 앙드레 콜라르의 배려심 깊은 피아노 반주 속에 감정이입을 최대한 자제한 화사한 색채감과 짙은 질감의 미술랭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1950~60년대 유행했던 프랑스 출신 첼리스트들이 추구했던 심미적인 예술관과 1960~70년대의 일본의 고가 LP 컬렉터들이 열광했던 '미술랭이 표현한 에스프리'에 대해 심분 느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50장 한정 수입반)



### ❖ 바흐 21 - 재즈풍의 바흐 명곡집 (Hybrid SACD)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전주곡/골드베르크 변주곡-아리아/바이올린 협주곡 BWV1041-안단테 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비바체/칸타타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마태수난곡-불쌍히 여기소서/영국 모음곡 2번 전주곡 외

바흐를 현대적인 재즈풍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바이올리니스트 필립 퀴트의 신보. 골드베르크 변주곡, 무반주 첼로 모음곡, 두 대의 바이올린 협주곡,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등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바흐의 명곡 8곡을 바이올린과 재즈 트리오를 위한 편성으로 편곡, 매트 헤르스쿠위츠 트리오와 함께 누구라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릴랙스한 바흐를 들려준다. 두 대의 바이올린 협주곡에서는 파격의 바이올리니스트 라라 세인트 존이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해 연주를 빛낸다.



### ❖ 로드리고 포트리이트 다큐멘터리 '그늘과 빛' & 아랑훼스협주곡 실황

페페 로메로(기타)/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지휘/네빌 매리너)

▶ 호아킨 로드리고의 생애와 그의 대표적인 아랑후에스 협주곡을 함께 담은 영상물

기타협주곡의 대명사와도 같은 걸작인 '아랑후에스 협주곡'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작곡가 호아킨 로드리고는 1901년 발렌시아 인근의 작은 항구도시인 사군토에서 태어났다. 그는 3세 때에 디프테리아의 후유증으로 실명하게 되었지만, 부단한 노력과 천부적인 재능으로 장애를 극복해낸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그늘과 빛'(Shadows & Light)은 1991년 그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70분 분량의 포트리이트 다큐멘터리로, 로드리고가 걸어왔던 남다른 인생여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그를 대표하는 걸작인 '아랑후에스 협주곡'의 연주 영상 또한 이번 신보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기타 거장의 한 사람인 페페 로메로가 네빌 매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와 협연한 기록으로, 이 작품 곳곳에 깃들여 있는 이국적인 색채와 빼어난 선율미를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 NEWS

## 부산시립무용단 '부산 in 이스탄불 2015', '2015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 참가



수준 높은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부산을 세계에 알려온 부산시립무용단이 9월 부산의 문화사절단으로 터키 이스탄불과 일본 시즈오카를 찾는다. 부산시와 자매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부산 in 이스탄불 2015' 행사를 위해 9월 3일 이스탄불로 떠나는 부산시립무용단은 6일 코자엘리대학 KOU Hall에서 열리는 '한국의 날' 행사에 이어 8일 Cemal Resit Rey Concert Hall에서 열리는 '부산 in 이스탄불 2015-우정의 밤' 행사에 참여한다. 매년 부산과 이스탄불을 오가며 펼쳐지고 있는 '부산 in 이스탄불(이스탄불 in 부산)'은 지난 2002년 자매도시 관계를 맺은 후 행정과 환경, 교육, 도시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가져오고 있는 부산과 이스탄불이 양 도시간의 우호를 다짐하며 마련하는 문화교류의 장이다. 두 차례 열리는 이번 이스탄불 공연에서는 부산시립무용단이 창단 4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창작무용 '춤추는 영혼'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레퍼토리와 부산시립무용단이 그동안 무대에 올린 한국 민속무용 레퍼토리를 엮은 흥과 멋의 무대 '찬란한 유산-Brilliant Heritage'로 터키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터키공연에 이어 부산시립무용단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일본 시즈오카시 일원에서 열리는 '2015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18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19일 고후쿠거리, 스포성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행사에 참여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은 21일 시즈오카시 시민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한·일 문화교류 공연'에 참가, 신명넘치는 다양한 종류의 북춤을 집대성한 '천고'로 우리 전통의 멋과 흥을 선사한다.

### 하반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일정

#### ■ 부산시립극단 '연극아! 같이 놀자!'

연극과 친해지기(인사나누기, 거울 되어보기), 연극놀이, 연극 만들기 (뮤지컬 장면 만들기, 낭독공연 만들어보기), 연극 체험하기(시립극단 등 지역 공연 관람)

- 4기 일정 : 9월 12일/19일/10월 3일/10일  
대상 : 초등 고학년 40명  
모집기간 : 8월 31일~9월 4일
- 5기 일정 : 10월 24일/31일/11월 7일/14일  
대상 : 중·고등학생 40명  
모집기간 : 10월 12일~10월 16일

####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 여행'

교과서 동요속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동요, 마음으로 느끼는 동요, 교과서 전래동요 속으로, 나만의 동요집 만들기(북아트) 등

- 4기 일정 : 10월 31일/11월 7일/14일/21일/28일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50명(부모님 참가는 선택)  
모집기간 : 10월 19일~23일

※ 수강료 : 무료

※ 접수방법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커뮤니티→꿈다락토요문화학교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아카데미 담당(607-3102~4)

# 2016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공개모집

부산의 문화를 이끌어온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지역 공연 예술분야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부산시민들의 문화의식 함양과 공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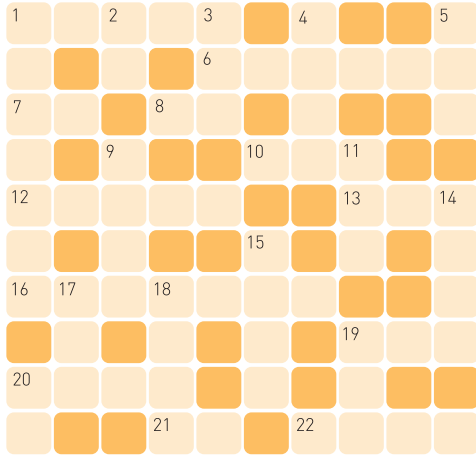
## 모집요강

- **모집기간** : 2015. 9. 21(월) ~ 10. 2(금), 17:00까지
- **공연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대극장 (767석/1,403석)
- **모집부문** :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 **신청자격** : 공연 기획사, 국립·민간 예술단체 등 (\*지역제한 없음)
- **제출서류**
  - 기획공연 공모 작품 지원신청서 (소정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1부
  - 단체, 개인 공연 자료 (공연 프로그램·사진 등) 첨부
  - 서류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자격제한**
  - 공연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연
  -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
  - 문화회관에 체납이 있는 기획사(접수 마감일 기준)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2층 공연과 기획공연담당자)
  - 우편접수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1,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기획공연담당자 앞)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42)

## 결과발표

- **2015년 11월 중 ※개별통보**
  - 발표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공연 세부 추진 사항(소요경비, 일정 등)은 추후 상호 협의 하에 진행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 가로열쇠

- ① 심시를 거쳐 선발된 부산의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펼치는 합창축제로, 28회를 맞는 올해는 10월 1일부터 사흘간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 ⑥ 1856년 독일 네안데르탈의 석회암 동굴에서 머리뼈가 발견된 화석 인류. 제4빙하기에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며, 지금의 인류와 유인원의 중간 형질로 유럽 각지와 소아시아에서도 발견되었다.
- ⑦ 나라에서 지정하여 법률로 보호하는 문화재로 제1호는 송례문.
- ⑧ 브라질 흑인계 주민들이 즐기기 시작한 춤 또는 그 춤곡.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브라질의 옛 수도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 춤의 축제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우 카니발'이 성대하게 펼쳐진다.
- ⑩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생을 노래한, 미국의 포크 싱어송라이터 돈 맥클린의 1972년 발표한 팝의 클래식.
- ⑫ 지난 2011년 9월 29일 개관한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애칭으로 '두레(함께 모여)'와 '리움(즐거움)'을 조명한 '함께 모여 영화를 즐기는 지리'라는 의미의 '두레리움(Dureraum)'이라고도 불린다.
- ⑬ '질문없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중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 상태를 이르는 말.
- ⑭ 아카데미상, 토니상, 미국배우조합상, 세 번의 에미상 그리고 두 번의 골든 글로브상 등을 수상한 영국 출신의 명배우. 그가 출연한 작품으로 미션, 카프카, 데미지, 로리타, 리스 본행 아간열차 등이 있다.
- ⑯ 여러 사람의 사진에서 얼굴의 각 부분을 따서 따로 합쳐 만들어 어떤 사람의 형상을 이루게 한 사진. 흔히 범죄 수사에서 목격자의 증언을 모아 용의자의 수배 전단을 만드는 데에 이용한다.
- 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시의 북쪽에 있는 도시. 1986년 4월 원자력 발전소에서 불이 나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기록되기도 했다.
- ⑱ 러시아 공산당을 창설하여 혁명을 지도했고 소련 최초의 국가원수가 되었다.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을 창설했으며, 마르크스 이후 가장 위대한 혁명사상가인 동시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혁명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다.
- ⑳ 1889년 파리 세계박람회가 열렸을 때 문을 연, '붉은 풍차'라는 뜻의 댄스 홀로 매혹적인 프렌치 캉캉으로 인기를 끌었다.

## 세로열쇠

- ① 매년 가을 부산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영화제로, 20회를 맞는 올해는 10월 1일부터 열흘간 열린다.
- ② 베토벤 제9번 교향곡.
- ③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레만 호에서 롱강이 흘러나오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유엔의 유럽 본부를 비롯해 국제적십자 본부, 국제경제기구 등 22개의 국제기구와 250개 이상의 비정부 기구가 이곳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회의들이 개최되고 있다.
- ④ '인어공주', '미운 오리 새끼', '별거숭이 임금님' 등 아동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수많은 걸작동화를 남긴 덴마크의 동화작가.
- ⑤ 한국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 지석묘(支石墓)라고도 부른다.
- ⑨ 1926년 이바노비치 작곡의 '도나우강의 잔물결'에 가사를 붙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성악가 윤심덕 노래의 반란곡.
- ⑩ 목적이 없는 도보여행 또는 산, 들과 바람따라 떠나는 색 여행.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달구지를 타고 정처없이 집단 이주한 데서 유래했으며, 등반과 하이킹의 중간형태로, 전문 산악인들이 개발한 네팔의 히말라야 등 험한 산악길이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이 용어로 정착했다.
- ⑭ 고종의 고명발로, 1925년 일본으로 끌려가 쓰시마섬 도주의 후예인 다케유키와 강제 결혼하는 등 평생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조선의 마지막 황녀.
- ⑮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며 정신을 집중시켜 행실을 뒤는 행위.
- ⑰ 희극가 '메리 위도우'로 일약 백만장자가 된 향거리 출신의 작곡가로, 주로 오페레타, 행진곡, 댄스 음악 등을 작곡해 요한 슈트라우스에 버금가는 파퓰러 뮤직의 대작곡가로 명성을 얻었다.
- ⑱ '우아하게 혹은 사랑스럽게라는 뜻의 악상용어.
- ⑳ 유럽 최고의 산맥으로 빙하와 화강암 바위들이 어우러진 절경으로 유명하다. 프랑스어로 '히만 산'이라는 뜻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다.
- ㉑ 러시아의 소설가 겸 극작가. 지루한 이야기, 사해된 섬의 수많은 작품을 써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객관주의 문학을 주장하였고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저술활동을 벌였다. 갈매기, 벚꽃 등 산 등 많은 희곡과 소설을 남겼다.

## 지난호 정답

부	산	참	버	뮤	지	페	스	티	벌
산		킷			소			파	
바		윌	리	엄	텔			아	니
다	트		스					메	에
축		공	트			리		서	울
제	사			소	설	포	비	아	
		계			포		핀	침	식
피		헤	라	클	레스			을	
아	바	나		레			봇	잡	
노			노	스	트	라	다	무	스

8월호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김지영(사하구 낙동대로)  
**초대권** 박선자(사상구 냉정로)  
 배정근(수영구 수영로)  
 정민경(수영구 민락본동로)  
 한윤성(남구 유엔로)

**문학동네** 김다희(동래구 명륜로)  
**도서** 박진호(기장군 차성로)  
 이정호(중구 보수대로)  
 정유진(금정구 개좌로)  
 최중현(수영구 수영로)

**옐로인 플라워** 박소연(해운대구 해운대로)  
**꽃다발 증정권** 백영선(연제구 법원로)

**큰집** 김홍수(서구 초창로)  
**식사권** 김상원(수영구 망미번영로)  
 오정화(영도구 절영로)  
 윤소영(사상구 주례로)  
 전상호(해운대구 대천로)

**조은극장** 김동원(동래구 삼어로)  
**초대권** 김정숙(영도구 남항남로)  
 백민경(사상구 냉정로)  
 오지윤(중구 동광길)  
 장진희(사하구 하신중앙로)

\*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 꽃다발 증정권을 드립니다.

# 9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가 달라집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를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공연 할인 제도 시행에 따라 청소년 회원 폐지,  
1인 관람객을 위한 그린회원 신설, 단체가입 혜택 대폭 조정

구 분	회 비	할인매수
골드회원	50,000원	4매
블루회원	30,000원	2매
그린회원(신설)	20,000원	1매

\* 단체가입할인 : 20명이상(10%), 30명이상(20%), 50명이상(30%)

## | 회원 가입 |

- 가입신청 : 전화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부산문화회관)  
※ 홈페이지 가입 : 인터넷(무료)회원 등록 후 마이페이지에서 정기회원 전환  
유료결제
- 방문신청 :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2층 예술단사무국 홍보팀

## | 관람권 예매 |

- 예매 : 전화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 036-01-034848-7(예금주/부산문화회관)
- 수령 :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

## | 회원 혜택 |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증 발급 우송(7일)
- 부산시내 공연장 정보를 담은 월간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정보 제공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5~30%)
-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 관람료 할인(10~30%)

- 예매 및 현장(당일) 관람권 구입시 할인(정기회원카드 제시), 입석 할인불가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단체공연 입장료 할인(주최측과 협의된 공연)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문화강좌, 시민예능교실 등)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가 있는 여행

## | 할인쿠폰발행 |

- 할인쿠폰발행(SKY하늘안과, 공간소극장, 모차르트,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필하모니, 하나돈가스(센텀점), 새날한의원(광안점/해운대점) 메가박스(서면점), 안경나라(동래점), 옐로인플라워(대연혁신점)  
※ 업체사정으로 변경 가능

## | 주의 사항 |

- 입장권 예매취소는 공연하루 전 16: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
- 입장권 예약하고 3일 이내 미입금 시 예매취소  
※ 정기회원(유료)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

## | 가입문의 |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051-607-3100, FAX 051-607-3109
- 평일 09:00~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부산시립합창단 제158회 정기연주회

# AUTUMN

# SONATA

지휘자 박신화 초청

## 합창으로 듣는 가을 소나타

2015. **9.17**(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객원지휘 박신화

오르간 정경님 하프 김영립 타악기 박용갑, 박병진  
카운터테너 정민호 플루트 장예지 안무 이혁재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홍보팀 607-3108 공연운영팀 607-3142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http://culture.busan.go.kr)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공연있는 날에 한함)